

6·3大選판이 요동친다

한덕수 가세, '反明 빅 텐트' 핵심 변수로 등장

대선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대한민국을 가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최종 대진표를 내놓지 못한 채 크고 작은 변수들이 속출하면서 선거판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따른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중도 낙마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일정이 촉박한 탓도 무시할 수 없지만, 양대 정당 모두 얽히고 설킨 난제들이 워낙 많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이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까지 가세해 대선판을 아예 새로 짜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달 후보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은 반탄(윤 대통령 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의 치열한 전쟁터로 드러났다. 역선택을 막기 위해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제한한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된 1차 경선에서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가 탈락하고, 반탄파(김문수·홍준표 후보)와 찬탄파(안철수·한동훈 후보)가 2명씩 살아남았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50%씩 반영된 2차 경선도 반탄파 1명(김)과 찬탄파 1명(한)으로 갈렸다. 홍 후보는 경선 직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편히 살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호통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전원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며 머리 숙일 때 홀로 꿋꿋이 자리에 앉아 버틴 ‘웃대 있는’ 장관으로 자리매김하며 반탄파의 지지가 몰렸다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이재명

는 분석이다. 반면 한 후보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끝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찬탄파의 선봉이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를 본선 후보로 곧장 내세울 계획이었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차 경선을 거쳐 이달 3일 전당대회에서 김·한 두 후보 중 1명을 대선 후보로 확정한다. 홍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은 2차 경선 후 김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당심을 엮은 김 후보가 대세를 굳히느냐, 민심의 한 후보가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느냐가 관심사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그늘을 벗어나는 게 과제이고, 한 후보는 ‘배신자 낙인’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다. ‘깜짝 스타 한덕수’란 변수가 등장했다. 한 대행 차출설은 지난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부쩍 힘을 받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부 지도자와의 첫 통화에서 6·3 대선 출마의향을 직접 타진하자 한 대행은 “고민 중”이라고만 했을 뿐 뚝 부러지게 불

출마를 못 박지는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한 차출설이 불거지자 당내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으나 경선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자신과 한 대행의 이름 가운데 한 자씩 합지한 ‘문덕’을 내세워 “을지‘문덕’이 필승 카드”라며 초장부터 단일화에 적극 나섰고, 한 후보도 “경선이 끝난 다음”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젠 ‘한 대망론’까지 나온다. 좌우 정권의 총리와 경제·통상·외교 요직을 역임한 경륜과 호남 지분(전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까지 갖췄다는 게 그의 강점이다. 영어 실력도 뛰어나다. 벌써 의원 20여 명이 세 불리기에 나섰다 한다. 임기 단축 및 분권형 개헌 공약과 ‘이재명 거짓말 백과사전’ 배포 같은 구체적인 선거 전략과 함께 “(2017년 대선 때 돌풍을 일으켰으나 정치 입문 20일 만에 퇴장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전철은 결코 밟지 않겠다”고 본인의 측근에게 다짐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이달 초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단일화를 넘어 ‘반명(反明) 빅 텐트론’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후보를 주축으로 한 대행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 범우파는 물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옛 민주당 보수세력까지 아우르는 ‘빅 텐트’로 민주당의 이재명 아성을 깨뜨리자는 발상이다. 이 상임고문은 언론 인터뷰에서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며 빅 텐트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고, 민주당 출신인 정대철 현정회장도 “바깥에서 빅 텐트를 친다면 자기도 흔쾌히 돕겠다고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다”고 확인했다.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시나리오로는 2002년 대선 당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당 역사상 최고 지지율(89.77%)로 ‘이재명 일극체제’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일찌감치 이 후보를 낙점한 민주당으로선 이 같은 단일화 논의가 달가울 리 없다.

문재인 정권은 통계조작 정부였다 (기사 4·5면)

〈2면에 계속〉

대법원 판결 ‘윤보명퇴 현실화’ 되나

<1면에 이어서>

역지로 밀어붙인 탄핵의 성공으로 차기 정권은 떼어 놓은 대상으로 여겼으나 아닌 밤중에 흉두깨 격이다.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필두로 우리 정치사에서 단일화의 위력은 자못 컸다. 2022년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0.73% 포인트 차이로 대권을 놓친 이 후보에게 악몽 그 자체다. 민주당이 “실패한 윤 정권의 총리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한 대행이 선거관에 직접 뛰어들어도 되나?” 등 온갖 구실로 맹공을 퍼붓고, “나가병(이번 대통령은 나인가)에 걸렸나?”고 조롱도 해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 후보의 진짜 악몽은 따로 있다. 바로 사법 리스크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이달 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2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해 온 ‘선거법 6·3·3 규정(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의 상고심 시한인 6월26일보다 56일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1심은 지난 대선 때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 이고 “다소 과장이 있는 의견 표명”이란 궤변을 들이대며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이를 만에 심리를 속행하고 다시 일주일 만에 판결하는 사상 초유의 속도전을 강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담긴 정치적 함의가 엿보인다. 이를 놓고 ‘대선에 앞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려는 차원’이라는 분석과 ‘이 후보 같은 범죄자가 당선될 경우에 빚어질 극도의 정치 혼란을 예방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 후보 본인은 “법대

로 하겠지요”라며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척 넘겼으나 민주당은 “피고인에 독이 되는 선고라면 날림공사”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조적으로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하느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느냐, 파기자판하느냐가 전 국민적 관심사다. 드물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 후보는 대선판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탄핵사태 이후 일각에서 제기한 ‘윤보명퇴(윤석열 보내고 이재명 퇴출)’가 현실화 된다는 얘기가. 이 재판 말고도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후보로서는 대선 때까지 매주 화요일 대장동 비리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내내 후보 자격 시비로 논란을 빚을 게 확실할뿐더러 설령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 시계추는 멈추는 법이 없다. 단일화든, 빅 텐트든, 대법원 유죄 판결에 따른 민주당 선수 교체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달 11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고작 열흘도 채 안 남은 짧은 기간에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고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의문시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전에 없이 크게 요동치는 선거판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고 어느 당의 누구를 찍느냐다. 민주당은 명색이 수권정당을 지향하면서 몇 년 동안 이 후보 한 사람의 개인 비리를 방탄하느라 대한민국 정치를 4류, 5류로 전락시킨 원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도저히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선거공학적인 단일화에 치우쳐 ‘반명(反明) 일변도’로만 나가서는 유권자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통상·안보 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할 확실한 복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효용가치를 다한 ‘87 체제’의 개혁 구상도 내놔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안을 제시하고 매번 되풀이되는 부정 선거 시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상향식 공천제 시행, 민주당이 여당 시절 공수처와 옛 바깥 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치공학의 개입 소지를 줄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외국인 투표권 폐지, 대통령 탄핵 사건 때마다 큰 물의를 빚곤 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치를 포함한 근본적인 수술, 행정 독재 못지않은 입법 독재 방지 방안 등도 공약집에 담아야 한다.㉠



이도선
본지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마무리시 권영섭



KjtV-Knews 2주년 기념식

대한언론인회는 4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유튜브방송 KjtV 개국 및 인터넷신문 news 발행 2주년 기념 오찬모임을 가졌다. 이에 앞서 본회 방송 녹화실에서 2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콘텐츠 창출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장석영 회장은 그간 수고한 스태프진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개설 2년 밖에 안됐지만 두 매체 모두 장족의 발전을 가져온데 대해 감사한다”며 구독자 확충과 광고유치에 배전의 노력을

을 당부했다.

KjtV는 구독자 1500명에 구독자 시청시간 4000시간이 눈앞에 와 있으며 곧 수익을 창출하면서 광고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news는 대한항공 배너 이미지 광고, 용인시청 홍보(배너광고), 국가보훈부 홍보(배너광고)물을 수수한 바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우백 KjtV 방송위원장, 김사모 인터넷신문 위원장을 비롯, 심상대, 서옥식, 이종세, 김두호, 이규진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본회 올 국제언론교류사업 일정 연기

9월1~4일 변경...6·3대선 영향

대한언론인회는 2025 국제언론 교류인 일본 방문 일정을 오는 9월 1일부터 3박4일간으로 변경했다. 교류단은 당초 6월 2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도쿄 및 오사카를 방문, NHK, 동경신문사 등과 언론문화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대선일정이 6월3일로 확정됨에 따라 방문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참가신청은 (02)732-4797 이지예팀장이 7월 15일까지 받는다.

정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87년 헌정 체제’ 확 바꾸는 개헌 절실



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파면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지 122일째다. 그동안 나라는 완전히 두 쪽이 났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세 폭탄으로 세계가 뒤집어졌다. 경제가 초비상이다. 그런데 온 나라가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소모적 정치 일정에 에너지를 허비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정당이 두 번째 겪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도 모르는 일로 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르다. 본인이 저지른 일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를 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인들을 투입했다. 그것이 엄포용, ‘계몽용’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국회에 군인들이 강제 투입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그대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됐다.

헌법에 정해놓은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막으려 시도한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것이다. 이것을 반민주 행위로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 헌정이 매우 위험해진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친위 쿠데타의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87년 헌정 체제가 한계를 드러냈다. 제도보다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사람 탓만 하기에는 너무 밑바닥을 보였다. 현재는 결정문에서 ‘대화과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온다고 꾸짖었다. 정치 현장에서 대화과 타협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대립 정치가 한계에 이르렀다.

윤 전 대통령의 불만도 이해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대통령에게는 국민을 통합할 책임이 있다. 나라가 두 쪽이 난 가장 큰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회가 견제하고, 집권당이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대화하고 협상해 관철할 책임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집권당의 당대표조차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열을 부추겼다. 정치적 반

“그게 내란”, “국회 독재”라고 하소연할 만하다. 이런 막가파식 충돌을 사람 탓만으로 돌릴 수 있을까. 87체제의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는 6월 3일 새 대통령을 뽑으면 끝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양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내내 ‘적폐 청산’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사람은 모두 적폐로 몰아 청산 대상이 됐다. 광화문과 서초동이 대립했다. 보수세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

반복해도 나라가 거덜나지 않고 버틸까. 결국 개헌이 답이다.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무한대치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원한다는 점이다. 국민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통령의 모델로 삼는 사람이 많다. 계몽군주형 대통령이다. ‘하면 된다’, ‘잘살아보세’를 가르치고, 이끌어가던 시절이다. 그게 그 시대의 소명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정치는 다르다. 함께 가야 한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도 들어줘야 한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고 싶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분권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권형은 자칫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내각제를 지향해야 한다.

국민은 메시아를 원한다. 그러나 메시아는 없다. 자기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메시아다. 그러나 일당이 독재하는 민주국가는 없다. 반대 진영에서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인정해야 민주주의다. 반대편에서도 그들의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

국회도 일당 독주를 피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화과, 타협과 없이 다수결로 돌아가는 국회라면 더 이상 정치는 없다. 결국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문제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양 휘둘러댄다. 품격 있는 민주주의라면 다양한 주장을 포용해야 한다.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대화과 타협하는 제도다.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한다.

지난 총선 때 서울 지역구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46.29%, 민주당이 52.23%를 얻었다. 6%포인트 차이다. 그런데 의석은 11석 대 37석으로 무려 3배가 넘는다. 승자독식 탓이다. 이런 승자독식 제도는 국민의힘이 고집했다.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다. 언제든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내로남불’이 돼선 안 된다.☞

정치권 대화과 타협 ‘실종’
대통령 對 의회 권력 ‘상충’
승자독식 선거제도 ‘화근’
협치 가능 정치체제 ‘미흡’

대자들을 비난하고 타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위헌적 행동을 반성하거나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물론 야당도 지나쳤다. 30건이나 탄핵을 추진했다. 헌정사에서 탄핵 소추된 16건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발생한 것이 13건이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겨냥해 반복해서 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국정 방향과 충돌하는 법안들을 거듭 통과해 정부로 보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정해 다시 보냈다. 정부 예산을 처음으로 몽텅 잘라냈다. 사상 처음으로 총액이 삭감된 예산을 통과시키고는 곧바로 추경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었다. 윤 전 대통령이

양했더니 그 역시 탄핵당했다. 새 대통령을 뽑아도 그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정치권은 모든 문제를 진영으로 갈라놓았다. 합리적 이성이 마비됐다. 우리 편이 무조건 옳고 상대 진영은 무슨 일을 해도 싫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탄핵 반대 세력이 수궁할까. 이 대표가 떨어지고, 다른 보수 후보가 당선되면 탄핵 찬성 세력이 용납할까. 당선되자마자 절대다수 야대(野大) 국회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여소야대이건, 여대야소이건 야당은 5년 내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반대하지 않을까. 이 국민을 누가 통합할 것인가. 이렇게 갈등을

〈이 글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가 주관한 ‘개헌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세미나 토론문 요약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바로 알기
Kjtv 다큐멘터리 주 1회 방영 인기폭발

주택 값·탈원전 경제수치 ‘입맛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 ...민주당, 국정전반 통계 ‘사기행각’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민주당 정권의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을 속이고 사기를 친 대표적인 통계조작 정부였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903쪽 분량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는 소득·고용·집값 통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왜곡·조작해 경제를 망들게 하고 민생을 파탄시켰다. 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4대강 수질 오염도 조작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보 해체를 결정했다. 특히 문 정부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 값이 최고 200% 정도 오르자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집권 5년간 부동산 통계를 102회나 조작했다.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 값 102회나 조작, 탈원전 정책도 경제성 평가수치 조작으로 밀어붙여

문제는 이러한 조작이 자기들의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됐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는 점이다. 일례로 문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이 더 낸 부담금은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조환)에 따른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이 줄면 부담금은 더 늘어나게 돼 있다. 집값 통계 조작이 정부 발표로 공식 확인된 만큼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원 데이터 자체를 조작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마차가 말을 끄는 정책’에 비유되는 문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소득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원전 정책을 역설하고 있다.

원자력 수주에서 원자력 초일류국가인 한국이 최소 100조원을 손해 본 것으로 추정됐다. 탈원전으로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동안 한국전력의 손실액은 25조 8088억원에 달했다. 대신 자신의 지지세력인 태양광 업체들에게 100조원 가까운 먹잇감을 안겼다. 4대강 개발로 전국 16개 보 가운데 13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는데도 각종 오염도 수치를 조작, 보 개방을 실시하고 해체를 결정했다. 결국 보 해체는 지역 주민, 특히 농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포기해야만 했다.

대한민국 건국 77년사에 홀로 나라 빛의 40%(이승만 전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600조원 남짓한 나라 빛을 5년간 100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림)를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조작·축소·왜곡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020년 7월 청와대는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우려돼 민주당 정권에 짐이 된다”는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고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을 조작해 당초 153%에서 81.1%로 낮췄다.

문 정부는 2018년부터 4년간 경북

소득 주도 성장 수치도 거짓 조작 발표

주도성장정책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좌파 경제논리로, 결국 성장·분배·고용에 성과가 없자 자신이 직접 나서 90% 이상 성과가 있었다고 엉터리 조작발표를 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라 시간당 6000원대에 달하는 최저임금을 1만원 가까이 급속히 끌어올리자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하는 등 역대 정권 중 최악의 빈부격차를 노정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11명이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문재인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수치도 엉터리 조작 발표
DMZ 감시초소 철거, 사드 배치 등 국가안보사항도 거짓 조작 발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 3707억원을 1778억원으로 낮추고, 이를 최종적으로 224억원으로 조작해 조기 폐쇄를 단행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파탄내고 해외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주변에서 25회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 이는 자신들의 좌파 정치적 이익(反美)을 위해 조사 결과를 일부러 감추고 국민을 속인 무책임한 행태였다. 국군은 2018년 3월부터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4월까지 일 반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25차례에 걸쳐 사드기지 주변 4개 지점에서 전자파를 매달 측정했다. 측정결과 전자파는 최대값이 0.018870W/m²로, 인체 보호기준(10W/m²)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5면에 계속>

통계조작 행위는 반헌법·국가반역 행위

‘北 GP불능-사드배치’ 안보사항도 거짓 투성이

<4면에 이어서>

인체에 영향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었다. 이는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정부가 측정 결과를 감춘 것은 중국과 북한 전체주의 김정은 정권을 의식해 북핵에 대비한 대한민국 안보를 사실상 포기하고 반미를 하려고 했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당시 사드를 국익에 백해무익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한 민주당의 대표적인 인사는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 송영길 등 20여명에 달한다. 종북 좌파 단체들이 “사드 전자파에 몸과 참외가 튀겨진다” 는 등 괴담을 퍼뜨려 사드 반대 운동을 펼친 것도 민주당의 주장과 대동소이했다. 문 정부로선 국가 안보보다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국방을 포기, 국가 안보사항을 조작한 사례는 끔찍하다. 2018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남북한이 비무장지대(DMZ)안의 감시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지하통로 등 북한 핵심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 군이 파악했음에도 문 정부는 검증 결과를 조작해 北 GP가 ‘완전 불능화’ 됐다고 국민을 물론 유엔사까지 속인 사실이 감사원 결과 밝혀져 현재 관련자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서해에서 실족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조작한 사례, 탈북어민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북으로 귀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국민을 속이고 북으로 보낸 반인권적인 사례는 모두 민주당의 문 정부 하에서 일어났다.

민주당은 과거 허무맹랑한 괴담과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선동하고 집권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면 말뚝계 멸종 등 해양생태계 파괴’ ‘천성산 터널 뚫리면 도룡뇽 멸종’ ‘대장동사건 몸통은 이재명 아닌 윤석열’ 등이 대표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도 마찬가지다. 태평양 도서국과 연안국 등 33개국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가짜로 만든 ‘일본정부용역보고서’니 ‘강통보고서’등으로 비방하며 온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사항도 서슴없이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11월20일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안에 있는 북한군 감시초소(GP)를 폭파하는 모습이다. 우리 군이 당시 폭파 후 북한 GP의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갖 괴담과 욕설, 악담, 음모론을 퍼뜨린 것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밖에 아르헨티나이다. 그리스는 2000년대 초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국내

탈북 어민 북송...민주당 정권 민낯 드러내

었다. 세계 200여 국가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정당이나 나라는 한국의 민주당, 중국공산당, 북한노동당 3곳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IAEA보고서를 ‘일본정부용역 보고서’ 등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았다.

국가 정치현안과 통계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돼 심각히 훼손되고, 국민 피해까지 초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인 민주당의 사과는 결코 없었다. 특히 통계조작은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 추락, 대내적으로는 국민 재산권 침해 등 그 피해가 막심한데도 말이다. 세계적으로 통계조작이 실제 국가 부도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와

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조작해 제출했다. 당시 실제 적자는 12.5%에 달했지만 6%로 축소해 보고했다. 2009년 EU 회계 감사에서 조작 사실이 발각되면서 그리스 경제는 급격히 신뢰를 잃고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고, 결국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아르헨티나 역시 통계조작으로 국가 신뢰도를 잃은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2012년 25%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10.8%로 축소 발표한 것이 문제가 돼 2013년 IMF로부터 ‘경제지표 조작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후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폭락, 경제 파탄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가 됐다.

국가 통계조작은 중범죄행위이자 반헌법 국가반역행위 민주당 정권의 민낯 날낫이 드러나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가안보에 속하는 정치현안과 국가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중범죄행위이고 나아가 국가반역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 등 공직자가 국민을 속이고 조작하라는 조항은 없다. 北 GP 철수 이행 내용 등 민감한 안보사항을 국민은 물론 유엔사까지 속이고, 서해 어로감시 중 실족사한 해수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자로 조작한 것도 모자라 이 공무원이 북한의 무차별 총격을 받고 흔적도 없이 소사(燒死)되자 이와 관련한 50여건의 ‘정보문건’을 폐기처분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분명한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귀순한 북한 어민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으로 돌려 보내놓고 그들이 북으로 가기 원했다고 국민을 속인 정부 역시 문 정부였다.

문 정부의 이런 조작·은폐 행위들은 우리 헌법의 지고(至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시장경제, 법치를 위반한 반헌법·반국가적 반역행위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의무로 대통령이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혐의 재판에 받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 말로 온갖 거짓과 조작으로 국민 보호와 국가안보 의무를 팽개치고, 경제와 민생을 거덜 낸 내란주범으로 처벌대상이다. 문 정권과 한패인 현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6·3대선에서 이 후보 당선을 위해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돼 있다.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그의 범죄는 음주운전 하나를 빼면 모두가 거짓과 속임수, 부정한 돈과 관련돼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거짓·조작정부 시즌2’가 될지 모른다.☞

특파원 수첩 런던 ①

전두환 전 대통령 ‘추태와 독선’ 3박4일

1986년 첫 영국 방문...청와대경호실 ‘과잉경호’ 눈살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생은 참으로 기구하다. 육사 11기로 각광 받고 보안사령관으로 평평거리다가 급기야는 일국의 대통령직을 찬탈, 천하를 호령하던니 그것으로 끝. 그 뒤로는 평생을 오욕의 삶을 살았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혼마저 구천을 헤매고 있는 모양이다. 그가 사후에 묻히기를 원했던 “북녘 땅이 보이는 언덕”은커녕 유골함은 파주의 어느 절에 임시 봉안되었다던가.

최근에는 그의 장남 전재국 씨가 세운 출판사 시공사도, 출판물 도소매업체 북플러스도 파산했다는 소식이다. 전두환 추징금 2천205억원 중 아직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867억원을 대신 내라는 법원 판결도 금년 연초에 내려졌다. 아들 회사의 파산이 추징금 회피를 위한 위장인지는 알 수 없다.

경호실에서 “우산 들지 마라” 비 쪼르륵 맞아

전두환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그의 험난한 앞날의 예고편이었을까? 런던에 머문 3박4일은 불길한 사건, 불상사의 연속이었다. 외교적 결례는 물론 추태와 독선으로 점철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영국 방문을 위해 런던에 도착한 것은 86년 4월 7일 오전 10시. 그날은 날씨가 유난스러웠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때아닌 진눈깨비가 비로 변하더니 바람이 거세게 불고 기온이 푹 떨어졌다. 영국 날씨야 하루에도 4 계절이 변덕을 부려 도무지 종잡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날은 특별히 유별났다. 전날까지 그렇게 화창하고 좋던 날씨가 하루 만에 돌변, 아주 험악해진 것이다.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동원된 100여명의 이 곳 주재 우리 교포들은 그런 날씨 속에서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다. <우리 대통령 어서 오십시오> 라는 플래카드가 비에 젖어 바람에 흔들



전두환 대통령이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해 교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렸다. 공항에는 양국 측 인사들이 서로 마주 보고 도열하여 비행기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국 측 인사들은 모두 우산을 받쳐 들고 있는데 한국 측 인사들은 고스란히 비를 쪼르륵 맞고 있었다. 청와

사, 박영수 한인회장 내외, 그리고 교민 대표로 김복경 킹스턴 한인 교회 목사 내외 등이었다. 이들은 유니언 잭 기와 태극기를 흔들었다.

전 대통령과 수행원 일행은 당초 런던 시내 중심가 브룩스 가에 있는 최

여기에 아파트 지어서 팔면 잘 팔리겠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심하고 자연과괴에 대한 인식은 희박했다. 후일담이지만 창문마다 설치되었던 방탄유리의 무게를 감당 못한 나머지 집은 살짝 주저앉았고 그 뒤 그 시설은 모두 철거되었다.

대통령 숙소가 암흑천지, 경호실장 권총 빼 들어

영국방문 첫날 워블던 테니스 클럽 연회장에서 열린 교포 위로 리셉션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자 일이 터졌다. 전깃불이 갑자기 꺼진 것이다. 대통령 일행이 머무르는 집에, 그것도 낮은 외국에서, 방문 첫 날 밤에 갑자기 암흑천지가 되었으니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안현태 경호실장이 권총을 꺼내 하늘 높이 들었다. “깜짝하지 마라” 추상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숨 막히는 순간, 아무도 미동도 하지 않은

예약해둔 호텔 버리고 돌연 대사관저 투숙 英 방문 첫날 정전 소동에 주위 ‘암흑 천지’

대 경호실 직원들로부터 경호 상 문제가 있으니 우산을 받쳐 들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명령뿐만 아니라 구석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이를 보고 있던 제프리 하우 영국외상이 한국 측 인사들에게 다가가 김복경 목사 부인에게 우산을 받쳐주었다. 김 목사의 부인 신시아는 영국인이다. 왜 우산을 받지 않느냐는 하우 외상의 물음에 청와대에서 못 받게 한다고 말한다면 무슨 봉변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 그저 우물쭈물하고 말았다고 옆에서 있던 박영수 한인회장이 나중에 술회했다.

예약해둔 호텔 버리고 돌연 대사관저로

당초 한국 정부에서는 공항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나오면 더욱 좋고 아니면 앤 공주나 마거릿 공주, 적어도 누구라도 왕실 가족의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기에 너무나 큰 꿈이었다. 왕실 가족은커녕 김영주 대

고급 호텔 클라리지 (Claridge)에 머물도록 예약이 되어 있었다. 실제로 김만재 부총리, 이원경 외무장관과 김진호 상공 등 수행원들은 이 호텔에 투숙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공항에 도착한 이후 행선지를 런던 교외 워블던에 있는 우리 대사관저로 차를 몰았다. 대외적으로는 호텔에 체류하는 것으로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대사관저를 숙소로 정한 것이다. 김영주 대사가 살고 있는 대사관저에 3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방탄유리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대사관저는 잔디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워블던 커먼(Wimbledon Common)을 바로 내려다 볼 수 있는 양지 바른 고급 주택가에 있다. 여기에는 개울물이 흐르고 한 쪽 구석에는 골프장이 있을 정도. 이에 앞서 당시 이진희 문공부장관이 런던을 방문, 관저 2층에서 오찬을 즐기면서 한 말이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아,

채 정적이 흐르고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야말로 일각이 삼추(三秋)같은 시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 얼마 뒤인가, 전기는 수리되어 안정을 되찾았다. 부하량 초과로 인한 정전이었다. 대통령 일행이 도착하자 마당에 세워둔 경호요원들을 위한 임시건물에 대낮같이 불을 켜고, 이튿날 윈저 궁에서 열리는 오찬에 맞추어 이순자 여사의 한복을 다리미질 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자 이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대사관저 경호를 위해서는 경호실 요원 외에 런던주재 상사직원들 30여명도 동원되었다. 경호실은 사전에 일찍부터 관저 옆집을 한 달가량 빌릴 것을 교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대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것은 물론이다. 김 대사는 영국대사를 마치고 귀국한 뒤 다른 보임을 받지 못했다.☞

대한연론 특별기획 근현대사 실록 28

고려공산당·反이승만 연합세력에 ‘탄핵’ 당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1호는 이승만이다. 꼭 100년 전 1925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에서 고려공산당과 반(反)이승만 세력이 연합하여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일방적으로 ‘면직’ 시킨 사건. 그 100년 후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왜 ‘반공’ 대통령만 탄핵되는가? 탄핵이 ‘체제전쟁’이기 때문이다.

3·1운동이 세운 자유 민주공화체제 임정은 출범 6년 만에 대통령 탄핵 즉시 소련식 소비에트 체제로 바뀐다. 공산당의 개헌을 공산당도 아닌 국무령(총리) 김구가 이를 승인하고 ‘주석’이 되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저마다 ‘개헌’을 떠들지만 어떤 ‘괴물 헌법’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29) 탄핵1호 & ‘100년 전쟁’

◆1920년 12월초 이승만은 호놀룰루에서 중국행 화물선에 올랐다. 임정 대통령의 밀항-30만달러 현상금이 걸려있는 고로 중국인 옷을 입고 비서 임병직과 부자(父子)로 행세하며 창고에 숨었는데 시체더미 관이 쌓인 틈이었다. 선달그믐 밤 상하이에 도착, 1921년 1월1일 대통령 환영식 겸 취임식, 하례식을 마치고 첫 국무회의—그것은 ‘체제전쟁’의 시작이었다.



현상금 30만 달러가 걸린 임정대통령 이승만이 중국인으로 위장, 화물선 시체 창고에 숨어 상하이로 밀항할 때의 모습.

국무총리 이동휘는 이승만에게 “임정을 소비에트 체제로 바꾸어 레닌의 지원을 받자”고 때를 썼다. 그는 이미 레닌혁명직후 1918년 연해주에 한인사회당(공산당)을 만들었고, 레닌의 공작금 200만 루블을 받아 ‘고려공산당’을 조직, 임정의 공산화를 추진했다. 당시 이 돈을 안 먹은 한인은 없을 정도였다 한다. 김구도 이동휘가 유혹했지만 거부했다고 ‘백범일지’에 썼다.

◆임정 국무회의는 날마다 이동휘의 막말과 욕설판이 되었다. “씩어 빠진 외교관 내세우는 이승만 밑에서 일 못하겠다” 사석에서도 대통령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그는 사표를 던졌다.

이동휘의 몽니와 싸우던 이승만도 상하이를 떠났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동지촌(同志村)을 건설하며 ‘공산당의 당부당’이란 사상 최초의 반공논문을 발표한다.(연재8 참조).

지도부가 없는 임정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다. 총리직을 사양한 안창호는 흥사단만 조직한다.

1924년 1월 레닌이 죽자 스탈린 세상, 진작부터 코민테른(Commintern) 두목인 그는 세계 공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상하이에 “유명무실해진 임정을 재건하자” 모스크바의 벨이 울렸다.

◆공산당은 임정 해체-신축을 주장한 ‘창조파’, 다수파인 도산파(島山派: 안창호파)는 부분개혁을 내세운 ‘개조파’로 나뉘어 싸우다가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결판내자고 했다. 우선 공동의 목표 ‘이승만 축출’에 이해가 맞았다. 안창호 역시 마다할 입장

이 아니다. 그는 ‘공산화 개헌’을 서두르는 공산당에게 “그럼 우리가 다 적색(赤色)이라 욕먹는다”며 만류하고, 오로지 라이벌 ‘이승만 제거’에 집중

했다고 한다.(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제3권). 왜 그랬을까? 윤치호는 “안창호의 지방열(지역감정)이 걱정”이라며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서북인 안창호씨는 기호인을 싫어한다. 기호인의 노력으로 독립을 얻는다면 차라리 독립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한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평양 출신 안창호는 기호파(畿湖派) 이승만에 대하여 “일본은 몇십년 적이지만 기호파는 천년 원수”라고도 했다.(윤치호 일기).

◆1925년 3월 드디어 ‘탄핵’ 개시, 국회는 “임정을 방치하고 하와이에서 호사하는 이승만은 직무유기”란 이유를 내세워 탄핵안을 18일 가결한다. 최초의 국회 독재, 각의에서 김구가 승인하고, 21일 이승만에게 ‘면직’을 통고하고, 1주일 후 30일 개헌안을 통



임정요인들의 이승만대통령 환영식. 꽃목걸이 대통령 좌우에 안창호와 이동휘 (1920).

과시킨다. 이동휘가 처음부터 이승만에게 요구했던 소련식 소비에트 체제로 바꾼 헌법 등장, 그 전문에서 3·1 독립선언서도 삭제되었다. 3·1독립정신에 따라 세운 민주공화제는 사라지고 이름만 남은 대한민국 자유체제가 공산당체제로 뒤집어졌다. 그래서 ‘탄핵은 체제전쟁’이다. 이를 아는지

야 침묵과 견인(堅忍)과 실력으로 대 단결하라” 조소앙 등 이승만 지지파는 상하이 임정을 타도하고 하와이로 이전하자고 졸랐으나 이승만은 물리쳤다. “몽쳐야 살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임정은 텅텅 비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다.

◆2013년 박근혜 정부때 방영된 좌

임정 국무총리 이동휘, 이승만에 “레닌 지원받자” 유혹 임정 국회 ‘이승만 직무유기’ 내세워 탄핵안 가결

모르는지 김구는 집단지도체제의 ‘주석’에 등극하였다. “상놈이 벼락출세”했다면서.

◆조선 본국과 미주에서 난리가 났다. 날벼락 ‘정변’에 ‘적색 쿠데타’가 웬 말이나. 경악과 분노의 성명이 폭발하고 국내외 동포들의 애국성금도 끊어졌다.

이승만은? 진작부터 김구에게 “공산당과 혼잡 마시오”란 경고를 거듭했던 이승만은 “아이들 장난 하느냐”며 껄껄 웃으며 ‘대통령 선포문’을 발한다. “민국 원년(1919)에 한성(서울)에서 조직하여 세계에 공포한 우리 임시정부는 일부 인사들이 파괴를 시도하여 정부전복의 정변을 실현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동포가 어찌 용인하리오…저 위법망동에 조금도 파동말고 3·1운동의 독립전도를 위하

익단체의 영상물 ‘백년전쟁’을 아시는가? 이승만-박정희를 친일파 매국노로 왜곡 조작한 의도야 뻔하지만, 그 타이틀 ‘백년전쟁’은 왜 ‘백년’인가? 바로 100년 전 임정 공산세력의 이승만 탄핵부터 기산한 전쟁, 그때부터 100년 되도록 이승만-박정희 때문에 ‘먹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분풀이였나? 아니다. 그것은 박근혜 ‘탄핵’의 봉화였는지 모른다.

6·25때 한국을 먹으려던 중국공산당의 주석(시진핑)이 사상 최초로 방한하고 나서, 박근혜가 미국미사일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하자 곧 바로 ‘탄핵의 촛불’이 나라를 태우지 않았던가.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을 삼키는 저들의 100년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

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뉴데일리 회장)

회우 광장

“이승만 ‘枯木歌’는 한국최초의 신체시”

1898년 3월 협성회 회보에 민족적 자주성 강조



신상성
본회 회우
용인대 명예교수

1. 이승만의 ‘枯木歌’

이승만(雲南 1875~1965)의 ‘고목가(枯木歌)’는 1898년 3월5일자 [협성회회보](제10호)에 발표된 순한글 시이다. 1908년 최남선이 발표한 ‘海에게서 소년에게’보다 10년 앞선 신체시로서 한국문학사에서 분명하게 재조명되어야 한다. 한국 최초의 신체시로 재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Song of an Old Tree’ 영문제목도 병행되어 있는 ‘고목가’는 조선조 말기 유행했던 애국시와 독립가(獨立歌)들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교과서적인 시적 형태를 제대로 갖춘 것은 ‘고목가’ 처음으로서 4연16행의 기승전결 한시(漢詩) 구조를 원용했다. 각연은 3-3-4 음보로서 ‘아리랑’과 같이 전통적 3음보 리듬을 갖추면서 현대적 자유시 형태이다. 신체시의 특징은 고전적 엄격한 한자체 한시와 현대적 한글체 자유시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다.

이승만은 정치인으로서만 과도하게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영국 수상 처칠과 같이 정치인이면서 문학인이었다. 특히 청년시절에 시, 수필, 소설 등 선구적이며 열정적 문학작품을 남겼다. 그가 한성감옥에서 집중하여 집필하였던 전집인 체역집(替役集) 등에는 수백편의 한시, 논설, 소설 등이 남아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학활동 연장선사에서 신체시 ‘고목가’도 창작된 것이다. 이 노래의 주제는 조선조 말기 고종황제를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 내의 극심한 내외외환과 민족의 운명을 염려한 것이다. 특히 주변 4대 강국의 헛바닥에 놀아나는 고종을 꼬집은 것은 압권이다. 전체 4절 중 2절만 우선 현대적으로 읽어보겠다.

(1) 슬프도대! 저 고목나무 다 늙어 버렸네/ 병들고 썩어서 반쪽만 서 있구나/

삭막한 비바람에 이리저리 굽혀져/ 몇 백년 큰 나무가 오늘날 위태하구나

(2) 원수 같은 딱따구리 밑둥을 쪼아대네/ 미련한 저 새야 쪼아대지 말거라/

쪼고 또 쪼다가 고목나무 부러지면/ 네 처자식과 네 몸 또한 어디에 의지하느냐

이승만은 고종황제를 늙고 병든 고목에 비유하여 비틀었다. 대한제국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긴급한 국제정치 역학 속에서 제정 러시아의 협박공갈을 비바람에, 친 러시아 수구파를 딱

따구리에, 협성회 개화파를 포수에 비유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웃 중국과 일본 열강 사이에서 어디로 튀어야 할지 모르는 때뚝기 신세였다. 대원군의 쇄국정치 죽창을 타리 속에서 국제정치와 세계정보에 대해 더욱 까막눈이었다.

당시 독립협회쪽 사회개혁파에 행동대장이었던 청년 이승만은 민주화와 민중화를 외쳤다. 당시에는 드문 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화시켜 나갔다. 일제가 뜬금없이 불지핀 전통적 조선조의 왕정폐지와 함께 공화정으로 혁명을 일으켜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꼬드김에 개화파 청년들이 일으킨 정치적 사건이 갑오경장이었다. 이승만도 여기에 합세하여 협성회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한국 최초의 신체시 ‘고목가’는 바로 썩은 나무 고종에 대한 유약한 처신과 외세의 악랄한 국제음모를 비판한 것이다. 민족적 자주성을 강조하며 민중 계몽을 위해 제작한 노래이다.

2. 이승만의 한시(漢詩)수업

허경진 교수(연세대)의 논문 ‘이승만의 작시(作詩) 활동과 한시세계’에는 이승만의 문학수업 내용을 연구하였는데 ‘이승만은 어려서부터 부친



창가(唱歌)도 훈련받았는데 두율(杜律) 곡조에 맞추어야 하는 등 딱딱한 구어체 한문학을 구연문학(口演文學)으로 재미있게 풀어내기도 했다. 갑오경장 이듬해 20세 때에는 배재학당에 입학한 뒤 불과 6개월 만에 배재학당 영어 조교로 발탁되었으며 제중원(濟衆院) 서양의사 파이팅(Fighting) 등에게 한글을 가르쳐줄 정도로 언어감이 탁월했다.

한성감옥에서는 최초의 한영사전을 편찬하기도 했는데 일본 간수가 그의 손가락 열 개를 얹어놓고 망치질 하는 등 갖은 고문 끝에 손가락 마디뼈들이 부러져 나갔다. 그러나 그

최남선의 ‘海에서 소년에게’ 10년 앞서 발표 고종황제 유약한 처신과 외세 침략 경고

이경선(李敬善)에게서 천자문을 배웠다. 6대 독자인 어린 이승만을 깨우치기 위해 그의 모친은 고향 개성에서 굳이 낮선 서울 남산 밑으로 이사를 정도로 조기교육에 열성을 보였다.

이승만은 10대 후반부터 조카뻘 이근수(李根秀)의 도동서당(桃洞書堂)에서 본격적으로 사서삼경을 공부하였다. 11세 때 통감절요(通鑑節要) 15권을 독파하고, 19세에 시전(詩傳) 이어 서전(書傳) 2권을 통째로 암송하기도 한 천재성을 보였다.

한학뿐 아니라 평산냉연(平山冷燕) 등 당시 인기였던 연애소설(장편 한글소설)과 삼국지(三國志) 등 해외의 수많은 소설도 섭렵하는 등 독서량이 상당했다.

수원의 유학자 이승설(李承高)에게 경전(經傳)과 시부(詩賦)를 배웠고, 부친의 친지 신면휴(申冕休)에게도 고급 한시 훈련을 받았다. 신면휴의 아들 신응우(申膺雨) 등은 그를 배재학당으로 끌어들이는 학교 동창생이기도 하다. 이승만의 한시는 평생 이어졌다. 첫째는 한성감옥, 둘째는 1910년 한일강제합병 이후의 망명지, 셋째는 광복 이후 조국 땅이다.

영남조 창(唱)의 대가 최응원에게

는 붓대를 감고 사전 편찬을 완성했다. 그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동화작가 베르타(Berta Metzger)에게 한국 전래동화 등을 소개하여 베르타는 1932년 “한국의 옛이야기”(Tales told in Korea)로 번역 출판하였다. 그 속표지에 ‘Dedicated to Dr. Syngman Rhee from the garden~’ (이승만 박사로부터 전해 들은 한국 이야기)라고 출처를 밝혀놓기도 했다.

이승만은 1899년 1월 ‘고종폐립음모’에 연루되어 1904년 8월까지(5년 7개월간) 한성감옥에 수감되었다. 감옥에서 쓴 한시, 수필, 평론 등을 모아 나중에 체역집(替役集)으로 발간했다. 여기에 수록된 감옥 동기들로서 이유형(李裕馨), 내부협판 유성준, 법무협판 이기동 등 유명한 지식인이자 고위 공무원들이었는데 바로 한시(漢詩) 동인들이었다.

또한 감옥에서 한시를 공동창작하기도 했는데 백일장 같이 제목(次韻)을 선언하면 여러 명이 같은 제목으로 시를 짓는다. 조선시대 시사(詩社)의 전형으로서 지금의 시동인(詩同人) 성격이다. 이승만의 체역집 마지막 시는 ‘청의부역’(靑衣赴役)작품이다. 또한 감옥에서 유명한 “독립정신” 등도 집필하였다.☞

‘트럼프 관세폭탄’ - 동맹도 우방도 없는 美 우선주의 글로벌 관세戰 ‘윈윈 협상길’ 열어야



배병휴
전 매일경제 주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폭탄은 뭘로 회피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전 세계 대상 관세전은 대미무역 흑자국에 대한 분노와 확신이 실려 있다. 미국 우선주의 신념하에 미국내 제조업을 부활시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GA)라는 트럼프의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 고관세를 얻어맞고 곧 이어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 25%도 10월부터 적용받을 상황이다.

수출주도형 우리경제는 지난 4월 20일 통계로 대미 수출이 14.3%나 감소하고 반도체 하나 제외하고는 10대 주력품목 모두가 몽땅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 중국 수출도 대폭 감소했으니 트럼프발 관세전 한방으로 우리의 제1, 제2 시장이 한꺼번에 결손되어 더 이상 이대로 버틸 수는 없는 지경이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지난달 24일 이뤄진 2+2 관세협상은 관세율 인하 및 K조선 협력 등 주고 받는 윈윈 협상을 모색해 일단 성공적인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협상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투톱 대표 외에 8개 부처 실무지원단 60여명이 참여했다. 각 부처에서 한·미관련 정책 및 협상자료를 확보한 이들 실무지원단은 자동차, 철강에서부터 농업, 바이오,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집단이 동원되었다. 이같은 협상대표와 실무지원단은 미국 측의 오해와 불신을 바로잡아 양국간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협상 최고 컨트롤타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상공부 통상파트에서 잔뼈가 굵었고 주미대사, 국무총리를 역임한 미국통이다. 그야말로 통상외교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 전화를 통해 양국 관세협상의 범위와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명하고 있다.

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표 후 뉴욕 증시 급락, 유가 폭락 등으로 미국내 에너지 생산을 크게 확대하려던 정책이 갈 길을 잃은 형국을 맞고 있다. 이 와중에 한·미 간 2+2 관세협상이 진행됐지만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미국과의 합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말로 경고 했다.

2+2 관세협상의 미국측 주역 스콧 배선트 미 재무장관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폭주를 완화시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JP모건 투자자회의에 참석하여 “대 중국 145%의 고관세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곧 상당폭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시 중국 이외 모든 나라의 적용을 90일 유예시키도록 조언한 것도 배선트 재무장관이었다. 또한 트럼프가 백악

美 제안, 2+2 관세협의 60여명 실무진 참여 통상외교 전문 한덕수 권한대행 협상력 주목

절부터 한국과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의 일단을 보여준 바 있다. 한국은 돈 잘 버는 '머니 머신'의 나라, 방위비 적게 부담하며 미국인 세금으로 방위지원 받는 나라로 믿는 모양이다. 지난 4월초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관련 차트를 직접 들고 설명하면서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에다 미국에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에 추가로 개별관세를 매긴다고 말했다. 이때 나온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25%이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7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을 일본과 함께 '최악의 침해국'으로 지정했으니 깜짝 놀랄 노릇이다. 트럼프는 “이들 나라가 적국보다 우방을 더 나쁘게 대우한다. 미국 상품에 높은 관세로 미국 산업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보면 잘못된 불신과 오해의 결과이다. 산업부는 미국 상품이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거의 무관세이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미국 수입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에 지나

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미무역 흑자국은 중국 2,954억 달러, EU 2,356억 달러, 멕시코 1,718억 달러, 베트남 1,235억 달러 순이고 그 뒤 7위 대만(739억 달러), 8위 일본(685억 달러), 9위 한국(660억 달러) 순이다.

이번 미국이 워싱턴 관세 협상을 제안하기에 앞서 트럼프는 중국 정부의 강력 보복 대응, 캐나다 등 우방국 반발에다 국내의 시장으로부터 강력 저항을 받아 정치적 곤경을 겪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증권거래위(SEC)위원장 취임선서 행사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국에 대한 145%의 고관세가 펜타닐 등 여러 요소가 쌓여 높아졌지만 곧 협상을 통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싸우자면 끝까지 맞설 것이며 대화를 원하면 문이 열려 있다”고 당당히 논평했다.

한편 WSJ는 미국 정부가 대 중국 145% 관세율을 50~65% 수준으로 인

관에서 대중국 관세 완화를 발표하면서 “금리인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파월 미연방준비위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뒤엎고 “그를 해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 것도 배선트 장관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고 알려졌다.

충분한 자료가 없는 예단이지만 이번 관세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고관세 예봉을 완화하여 양국을 윈윈의 길로 안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미통상 경륜이 높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도의 협상대표팀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다만 한 대행이 범보수계 정치권으로부터 대선 출마 권고를 받고 있는 모습이 교섭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 대행은 이번 협상을 '마지막 소임'이라며 최선의 힘을 쏟고 있지만 측근 인사들로 구성된 범국민 대통령 추대위가 구성,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상전문가로서 최적의 관세협상 지도력을 발휘해 국가 중책을 다 할 것으로 믿는다. ☞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업입니다

자유, 민주, 공화의 기틀 위에 세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의 나라!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선대들이 세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기금을 모금한 지 5개월, 오직 국민의 손으로만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고사리손의 꼬마 기부자부터 대통령까지 각계각층의 국민께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념관을 적기에 건립하여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및 발전사의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자랑스러워할 이 과업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습니다.

모금 계좌 (예금주: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농협	301-0334-1185-31	국민	815601-04-182916
우리	1005-104-553918	하나	109-910035-23404
신한	100-036-637911	새마을	9002-2034-6284-4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 김항식
 고문 | 박지만, 노재현, 김현철, 김홍업
 추진위원 | 김군기, 김길자, 김명섭, 김석규, 박유재, 복거일, 손병두, 신영균, 신철식, 안병훈, 이영일, 이영훈, 이운생, 이인호, 이장호, 이진만, 이창진, 인보길, 정용상, 조보현, 주대환, 한용외, 한화갑, 황성욱



#<건국전쟁>의 감동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으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액 100억 돌파!



*홈페이지 후원 환영 www.이승만재단.com
 네이버, 구글에서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을 검색해 주세요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유일한 공식 모금 기관입니다
 *후원자 예우 등을 위해 후원하신 후 이메일로 (donation@rheesyngmanfoundation.or.kr)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77.0391

“건국과 국가부흥, 두 대통령 업적 조명”

다큐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 이장호 감독 인터뷰

이장호 감독하면 “별들의 고향”을 떠올릴 정도로 70년대 청년들의 우상이었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른바 ‘청년문화’가 유행할 때 “별들의 고향”은 블랙홀이었다. 리얼리즘의 정수를 청년의 가슴에 쏟아부어 영혼을 흔들었다. 당시 군사독재의 엄혹한 현실에서 방황하던 청년들은 카타르시스를 그의 피부에 와 닿는 리얼리즘에서 찾았다. 그래서 그는 데뷔 때부터 스타 감독이었다. 그런 그가 최근 큰 사고(?)를 쳤다. 멜로 영화의 거장이었던 그가 80 나이에 다큐를 제작해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그것도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의 진실을 우리 앞에 소환했다. 지난 4월 16일 개봉된 다큐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려진 부분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흥’ 대통령을 잇는 연결고리를 사실적으로 조명한 역사적 작품이다. 지난해 국민의 큰 관심을 끌며 관객 1백만명을 돌파했던 김덕영 감독의 다큐 [건국전쟁]의 뒤를 잇는 시대물이라 할 수 있다. ‘하보우만’이라는 제목부터 예사롭지가 않다. 애국가 가사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에서 첫 글자를 따온 것인데 이 감독이 어떤 마음으로 이 다큐영화를 만들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편집자 주)



다큐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에 대해 설명하는 이장호 감독(왼쪽), 오른쪽은 대담자 이규진 총괄부회장.

어떻게 ‘하보우만의 약속’이란 다큐를 만들게 되셨는지…

“제가 ‘별들의 고향’으로 영화에 데뷔한지 꼭 50년이 되었습니다. 70~80년대 ‘바람 불어 좋은 날’ ‘무릎과 무릎 사이’ ‘어우동’ 등 명성과 돈을 좇아 멜로 영화만 만들었는데 너무 철부지로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후 육체적인 본능을 좇기보다 사람의 영혼에 매달려 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눈이 뜨이더군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영화를 만들자는 결심이 서게 됐죠. ‘하보우만’을 떠올린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구절에 이르면 가슴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보우하사’에 ‘약속’을 붙인 것은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큐영화의 주제를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으로 설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언약이라고 방금 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짚어서는 별 관심 없다가 환갑 넘어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된 후 ‘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나라가 세워졌구나’ 깨닫게 된 거지요, 나이 들어 철이 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고 기도로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1945년 해방 이후 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국

할 수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주인공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연출, 감독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승만을 쓰신 거지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대통령은 기독교

이승만라인(평화선)을 선포해 독도를 우리 영토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편입시킨 본인인데 친일파라니요, 웃기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한 것은 틀림없는데 왜 그랬는지 살펴야 합니다. ‘잘 살아 보세’의 새마

(反共)을 국시(國是)로 삼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1923년 3월 미국에서 ‘태평양’이라는 잡지에 ‘공산당의 당 부당’이라는 논문을 게재해 공산주의의 실태를 폭로했어요. 아마 공산당을 파헤친 것은 세계에서 처음으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장군의 역사적인 첫 만남. 6.25 전쟁 휴전 2년 뒤인 1955년 11월 3일 전방 군 시찰에 나선 이승만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강원도 인제 3군단을 찾아 예하 5사단장 박정희 준장(왼쪽 세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의 언약을 실천하시기 위해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바톤터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 듣고 배우고 알았는데요.

“바로 역사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역사에 눈을 뜨기 전에는 그렇게 알았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평생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친일파가 됩니까? 소위

을운동과 경제부흥을 통한 민족중흥론 등 좀 더 크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저력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쌓은 건국과 부흥의 토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하보우만의 약속’을 보면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두 대통령의 공통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배척한 지도자라는 점입니다. 바로 반공

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인들이 알고는 이승만 박사의 해안에 감탄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 공산당을 적으로 삼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했지요.”

현실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한반도를 나누어 분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화의 위험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여러차례 있었지요. 6·25 전쟁이 대표적이고요, 4·19 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무력으로 남침한 공산군이 대구까지 밀고 내려갔는데 유엔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습니까? 4·19 때는 철없는 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치면서 금방이라도 통일할 듯이 했지요.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우리 사회 곳곳에 첩자를 침투시켜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인가 백두산에 올라 북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는데 문득 분단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국민을, 우리 민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범답안을 내려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리: 이규진 총괄 부회장)

난관 많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순항할까

김동문 신임 회장, 원대한 꿈 '가시밭길'

지난달 21일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에 취임한 김동문(50) 회장의 앞날이 점점산중(疊疊山中)이다. 전임 김택규(60) 회장이 선거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는가 하면 안세영(23·삼성생명) 등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신발, 라켓 등 용품 사용과 관련해 선수들의 권익을 주장, 협회에 대한 용품사의 후원금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의 협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유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23일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54표 가운데 64표를 얻어 31대 회장이었던 김택규 후보(43표),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 회장 전경훈 후보(51·39표), 전 대구 배드민턴협회 회장 최승탁 후보(60·8표)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김 회장은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혼합복식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 남자복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탄데 이어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도 우수한 스타플레이어 출신. 2004년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한 그는 캐나다 유학 생활을 거쳐 2012년부터 모교인 원광대에서 교수로서 후배 양성에 전념하다 이번 선거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수장에 피선됐다.

하지만 연임에 실패한 김택규 전 회장은 지난 2월 13일 서울동부지법에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상대로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김동문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 32대 신임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임 회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소송이 진행중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파리올림

안세영 '작심발언' 일파만파...협회는 전전긍긍

한편 김동문 회장은 취임식에 이은

김택규 전회장, 선거불복 소송제기 대표선수들은 '용품 후원금은 내 몫'

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귀국 회견에서 협회 행정의 부당함을 폭로해 논란은 빚은 장본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43) 후보에게 패배하자 깨끗이 승복하고 체육계를 떠난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신발, 라켓, 보호대 등 대표선수들의 개인용품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표선수들의 개인용품 사용은 한국 배드민턴계의 핵심 쟁점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그동안 후원사인 일본의 요넥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대표선수들이 요넥스의 신발, 라켓 등 용품을 사용

하도록 했는데 작년 8월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김 회장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세영의 작심 발언 요지는 선수가 받아야 할 후원사의 후원금을 협회가 챙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었다. 안세영의 발언에 유인촌 장관 등 문체부 관계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후원사인 요넥스가 선수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지급할 후원금의 대폭 삭감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협회는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요넥스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매년 40억 원으로 추정되는 후원금(10억 원어치 용품은 별도)을 내왔는데 이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신인 발굴, 선수 훈련, 배드민턴 인구 저변 확대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김동문 회장이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주목된다.

배드민턴계에서는 협회에 대한 요넥스의 후원금이 대폭 삭감될 경우 대만의 빅터, 중국의 리닝 등 여타 배드민턴 용품사와의 협상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 배드민턴 용품사들은 3백만 명에 달하는 한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상대로 치열한 판촉 경쟁을 벌여 오고 있다.☞

이중세(본회 부회장·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한국축구 내달 A매치 '먹구름'

손흥민·황희찬·이강인 등 유럽파 동반 부진

한국 축구 황금세대를 이끌어 온 유럽파 스타들이 흔들리고 있다. 손흥민(32·토트넘), 황희찬(28·울버햄튼),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 등이 동반 부진에 빠지며 차기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대표팀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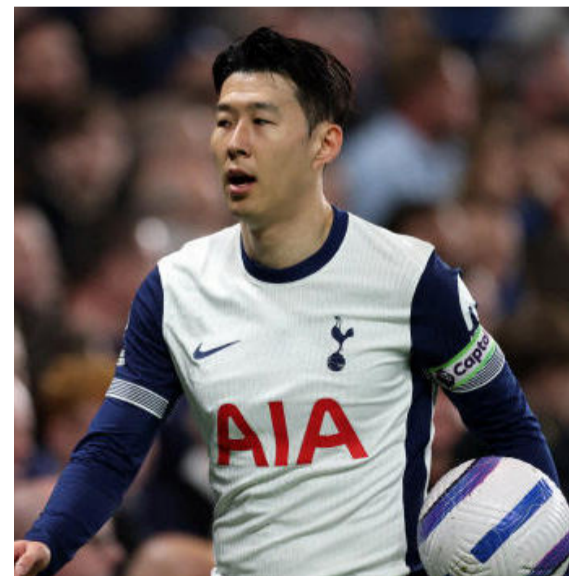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선수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오랜 기간 몸담고 있는 손흥민은 최근 발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이 리그 하위권으로 추락한 가운데 손흥민은 출전 시간도 줄어들었다. 손흥민은 4월 28일 현재 직전 리그 5경기 중 단 1경기밖에 풀타임을 뛰지 못했고 이 기간 출전 시간은 총 450분 중 260분에 불과했다.

황희찬은 더 심각하다. 한 시즌 만에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 인저리 타임에나 얼굴을 내미는 처지가 됐다. 황희찬은 지난해 8월 첼시와 벌인

EPL 2라운드 이후 한 번도 풀타임을 뛰지 못했다. 지난 시즌 EPL에서 12골 3도움으로 맹위를 떨친 뒤 울버햄튼과 2028년까지 장기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지금 분위기라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번 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에서만 6골 6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강인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입지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이강인은 후반기 들어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출전시간이 줄어드는 추세다. 설상가상으로 3월 A매치에서 왼쪽 발목을 다쳐 한 동안 회복에 전념해야 했다. 이강인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크바라츠헬리아(조지아)를 데려온 뒤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럽파 스타들의 동반 슬럼프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하는 한국대표팀에도 악재다. 대표팀은 6월 A매치를 통해 본선 진출을 확정하고 본격



손흥민

적인 월드컵을 준비해야 하는데 주축 역할은 변함없이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이 해줘야 한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들의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은 실전경기 감각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예술인 그 삶과 예술혼 ㉔

한국영화의 전설 신상옥 감독 ㉔

파란만장한 삶...평생 영화와 함께 살다

‘어느 여대생의 고백’이 흥행에 성공하자 1959년부터 신상옥의 영화는 사회적 소재를 버리고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랑에 집착한다. 1959년 ‘춘희’ ‘동심초’ ‘자매의 화원’을, 1960년 ‘로맨스 빠빠’ ‘이생명 다하도록’ ‘백사부인’을, 1961년에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상록수’를 제작, 감독했다. 작품들의 내용은 행복한 결말의 사랑이건 이루지 못할 안타까운 사랑이건 페미니즘이 짙은 휴머니즘이 근간을 이뤘다. 역사물 ‘연산군’도 억울하게 죽은 폐비 어머니에 대한 아들 연산의 지극한 효성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신상옥은 사랑이란 주제에 철저하게 매달리면서 요란한 폭죽 없이 잔잔하게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한국영화 최고의 흥행감독으로 자리를 굳혀갔다.

‘동심초’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미망인의 사랑을 다루면서도 미망인에게 지조를 지키게 함으로써 도덕적 규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 ‘자매의 화원’은 언니의 애인을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끝내 제자리로 돌아왔고, ‘상록수’와 ‘이생명 다하도록’은 실화 주인공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담았다. 밖으로 발산되지 않는 안으로 축적된 내재적인 답답한 사랑이지만 이런 사랑이기에 관객들의 마음은 애석함과 여운이 길었다. 1960년대 영화의 사랑은 요즘처럼 불륜도 당당하게 묘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도덕규범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물론 영화 검열도 시회적인 미풍양속을 강조하는 시대이기도 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신상옥은 1961년 ‘연산군’ 감독을 신호탄으로 1965년까지 역사물에 집착한다. 1962년 ‘폭군 연산’ ‘열녀문’, 1963년 ‘강화도령’ ‘철종과 복녀’를 연출했다. ‘연산군’은 서울을 위시해서 지방에까지 흥행대박을 터트렸다. 컬러화면에 연산군으로 출연한 신영균의 포효하는 연기는 압권이었다. 신영균은 그 해 창설된 문공부 제정 제1회 대종상 남우주연상과 부일영화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연산군’은 신영균을 위한 영화처럼 되어버렸다. ‘연산군’은 제1회 대종상에서 남우주연상 외에 최고상인 작품상을 수상했고, 한은진이 여우조연상을, 배성학이 촬영상을, 정윤주가 음악상을, 이규창이 조명상을, 한양스튜디오가 녹음상



신상옥 감독의 1964년 작 <빨간 마후라>. 공군 조종사들의 사랑과 우정, 애국심을 다룬 영화로 왼쪽부터 윤인자 최무룡 신영균 최은희.

을, 정우택이 미술상을 수상하는 등상을 휩쓸었다. ‘연산군’으로 흥행수익을 두둑이 올린 지방흥행사들의 속편 제작요청이 신 감독에게 빚발쳤다. 그래서 신 감독은 ‘연산군’ 속편인 ‘폭군 연산’을 만들었고 잇따라 흥행 성

무력함을 느낀 좌절 등 절대 권력자가 느낀 개인적인 정과 권력의 소외라는 단면을 신상옥의 역사영화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윤 전 대통

고전했다. 홍콩을 비롯한 합작영화 프로젝트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정부의 지원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신 감독은 5·16군사정부의 한 실력자와 친했는데 그가 권력핵심부에서 밀려나 그 영향이란 소문도 있었다. 신 감독은 그 권력자의 추천으로 한 여배우를 데뷔시키기도 했다) 신 감독은 재정위기에 몰리고 안양 종합촬영소는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고, 현대식 설비로 갖추어진 스튜디오는 먼지만 끼었다. 악전고투하던 중 1975년 홍콩과 합작영화 ‘장미와 들개’의 예고편이 검열에 삭제된 신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등록취소 통고를 받고 신필름은 문을 닫았다.

1978년 1월 14일 최은희가 홍콩에서 김정일 지령으로 납북되자 신상옥은 그녀의 행방을 홍콩에서 찾다가 그해 7월19일 납북됐다. 신 감독은 북한이 세운 신필름영화촬영소 총장으로

‘사랑’ 주제로 연산군·철종 등 역사적 인물 재해석

1964년 ‘빨간 마후라’ 흥행 대박...스크린 ‘황금의 손’

공을 거두었다. 내친김에 신상옥은 1963년 ‘강화도령’을 제작·감독한다. 이조 말엽 현종이 병상에 눕자 각 당과 간에 왕권다툼이 치열해지고 왕손이면서도 강화도에서 나무꾼으로 있는 촌뜨기가 하루아침에 철종으로 등극한다. 세도가들이 서로 견제를 위해 영리한 자보다 무식한 나무꾼을 왕위에 올리고 자신들이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이었다. 주인공 강화도령 역에는 ‘연산군’의 히어로 신영균이 캐스팅 됐다. ‘강화도령’ 역시 흥행에 성공하자 곧바로 속편인 ‘철종과 복녀’를 만들었다.

신상옥이 역사물에 한 때 집착한 것은 흥행의 이유가 가장 컸겠지만 역사적 인물 창출에도 특별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아야 하는 아들로서의 도리와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친 왕의 처지에서 벗어난 갈등 가운데 폭군 연산이란 인물이 놓여 있다. 그리고 왕이 된 철종은 궁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만 강화도 나무꾼 시절의 복녀를 잊지 못한다. 뒤늦게 왕으로서 정사를 펴보고 싶어 하지만 조 대비 세력 앞에서

령의 지극한 아내 사랑과 거대 야당의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에 얼마나 소외와 무력감을 느꼈을까. 시간이 지나면 사법부 판단으로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참지 못하고 성급한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한 것도 비슷하다. 철종이 좌절감에서 주색에 빠져 33세에 승하했듯이 윤 전 대통령도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났다. 시간은 흘렀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닮은꼴이다.

1964년 신 감독은 공군 조종사들의 전우애와 사랑, 애국심을 다룬 한운사의 라디오 연속극 ‘빨간 마후라’를 감독하여 또 흥행대박을 터트렸다. 이 시기야말로 신상옥은 ‘황금의 손’이었다. 1958년 ‘어느 여대생의 고백’에서 1964년 ‘빨간 마후라’ ‘병어리 삼룡이’까지 전부 흥행에 성공했다. ‘빨간 마후라’는 영화 흥행 성공과 함께 황문평 작곡, 자니 브라더스가 부른 주제가 히트되어 애창되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1960년대 후반부터 신 감독과 신필름은 흥행작을 내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TV의 안방극장 점령으로 극장 불황까지 겹쳐

말으면서 ‘소금’ ‘불가사리’ 등의 영화를 만들었다. 당시 북한영화는 체제선전과 계몽·코미디·첩보영화 일색이었는데 신 감독 영화는 재미와 작품성을 겸해 김정일과 북한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1986년 3월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대사관으로 탈출,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1990년 귀국해서 반공영화 ‘마유미’로 복귀를 알렸다. 1994년 한국인 최초로 칸영화제 심사위원을 맡았고, 신 감독의 정치스릴러 ‘증발’이 비경쟁부문에 초청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1995년 사이먼 신이라는 예명으로 닌자카드 영화 3편을 감독, 개봉했으나 흥행은 실패했다.

2000년 완전 귀국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유작 ‘겨울 이야기’의 제작·감독을 맡았다. 2003년에는 최은희와 함께 안양에 신필름 인스티튜트라는 연기학원을 개설했다. 이후 간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2006년 4월11일 사망했고 유해는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천주교공원묘지에 묻혔다. ☞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VISIT GANGWON YEAR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GWTO 강원관광재단
Gangwon Tourism Organization



‘무작정 상경’ 1950년대 슬픈 시골풍경

1956년 김정애의 ‘앵두나무 처녀’

신대남

칼럼



‘그 시절 그 노래’

<5>

서울은 지금 초만원이다. 밀려 타고 내리는 출퇴근 길의 지하철이다. 1956년 시골의 처녀 총각들이 서울로 서울로 단뽕집을 싸던 시절의 모습을 풍자한 ‘앵두나무 처녀’라는 노래가 유행했다. 피임도 할 수 없는 시절이어서 한 집에 보통 7~8 명의 대가족이 살던 힘겨운 때였다. 당장 입에 풀칠도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일이 허다하고 강냉이 죽으로 허기를 채우기도 했다.

가난에 찌든 동네 처녀 총각들이 한 입이라도 덜어주고, 한 푼이라도 돈 벌어 집안을 돕기 위해 가족도 몰래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도망가던 눈물겨운 시절이었다. 그리고 7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서울은 현대판 ‘앵두나무 처녀’들의 희망의 종착역이고 정원 초과와 포화상태다.

‘앵두나무 처녀’.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추억의 노래이고 순박한 여인의 애칭이다. 요즘이야 수도권 뿐만 틀면 찬물, 더운물이 나오지만 옛 날엔 마을마다 공동 우물이 있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마시고 밥 짓고 살았다. 동네 우물터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하고 무더운 여름밤이면 등물도 하면서 하는 말들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동네 방송국이였다. 요즘의 네이버, 유튜브, SNS다.

그 우물가에는 자그마한 앵두나무가 있었다. 4월이면 하얀 꽃이 피고, 6월이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탐스럽고 귀여운 빨간 앵두가 물방울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 앵두를 한 움큼 따서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맛도 어린 날의 추억이고 그리움이다. 앵두는 달았다. 그래서 여인들의 예쁜 입술을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이쁜이도 금순이도 단뽕집을 썼다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처녀만이 아니었다. “올 가을 풍년가에 장가들라 하였건만/ 신부 감이 서울로 도망갔으니” 동네 총각들의 맥이 풀리고 복돌이도 삼룡이도 단뽕집을 싸서 서울로 가는 것이었다. 자식을 객지로 보낸 부모와 가족들이 비탄에 젖는 아픔의 시대였다. 자식을 찾아 서울로 나선 아버지는 여비만 들고 눈물로 돌아서는 정스럽고 가난한 시대였다. ‘앵두나무 처녀’는 천봉이 작사하고 ‘빈대떡 신사’의 가수 한복남이 곡을 붙여 김정애가 노래했다.

무작정 상경한 이쁜이나 금순이는 재봉 공장, 고무신 공장의 공원이거나 가사 도우미, 웃음 파는 카바레의 에레나가 되기도 했다. 필자는 2023년 7월 매일경제 신문의 ‘매경 춘추’에 당시 사회 문제였던



앵두나무 우물가의 아낙네들. 물 길으며 하는 얘기들이 동네 방송국이였다.

인구의 서울 집중현상을 ‘에레나가 된 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그때 폐가로 방치된 전국의 빈집은 6만 6천여 호나 된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일 년이 지난, 작년 7월 행안부와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여 호로 두배가 넘게 늘었다. 빈집의 증가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원인이다. 빈집은 범죄와 안전, 환경의 불안정 등으로 주변의 생활 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어 인근의 주민들마저 떠나고 지역의 침체로 이어진다.



‘앵두나무 처녀’의 가수 김정애. 1950~60년대 한국의 아픔을 노래했다.

박하고 혼탁한 먼지의 세상에서 사는 지를 돌아보고, 신선한 텃밭의 음식, 정겨운 인심, 여유로운 농어촌, 산촌의 풍경을 보면서 무미건조한 환경 속에서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는 나를 치유한다.

‘앵두나무 처녀’가 단뽕집을 싣고 향한 유행가는 여럿이 있다. 1954년 그 유명한 안다성의 ‘에레나가 된 순이’를 시작으로 56년 김정애의 ‘앵두나무 처녀’, 명국환의 ‘종착의 서울역’ 등이 연이어 히트했다. 에레나와 카추사, 1950~60년대 우리의 슬픈 이름이다.

‘70년 세월’ 지났어도 서울은 초만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시골 공동화’ 심각

기자 시절 필자가 미국 취재를 갔을 때의 이야기다. 15개 주를 돌았는데 가는 곳마다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꽃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나 물의 도시 시애틀은 물론, 수도 워싱턴, 금융도시 뉴욕, 시카고, LA,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숨이 턱턱 막히도록 뜨거운 텍사스의 휴스턴에서까지 “왜, 이렇게 뜨거운 곳에 사느냐”고 물으면 “텍사스가 미국에서 제일 좋다”고 했다.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균형 잡힌 발전으로 어느 곳이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앵두나무 처녀’들이 찾아온 서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녹록지가 않았던 것 같다. 3절의 가사에서 “서울이란 요술쟁이 찾아갈 곳 못 되더라/ 새빨간 그 입술에 웃음 파는 엘레나야/ 헛고생을 맡고서 고향에 가자/ 달래주던 복돌이에 이쁜이는 울었네” 라고 노래한다.

농어촌은 지금 노인들만 남아 외로운 여생을 보내는 곳이 많다. 이따금 귀농, 귀어촌이 뉴스가 되는 지경이다. 가끔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동네한 바퀴’ ‘한국인의 밥상’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각

고향에 대한 노래는 가곡 동요까지 다양하다. 세대와 신분 지역을 초월해 고향은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고 그리움이다. 그러나 이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의 ‘가고파’도,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피던 ‘나의 살던 고향’도 노래로만 박제되고 있다.

5,168만 명의 인구 중 9백59만 7천 명이 서울에 몰려 살고 있다. 천정부지의 집값, 자고새면 치솟는 물가, 두쪽으로 갈라진 고성이가 가깝거나 동맥경화에 걸린 차도를 시도 때도 없이 가로막고 거친데도 서울은 여전히 현대판 ‘앵두나무 처녀’들의 희망이고 종착역이다.

서울은 정말 그럴까? 2023년 한해만해도 폐업한 자영업자가 91만 819명, 20대 자영업자 5명중 1명이 폐업을 했다. 아파트와 빌딩 숲에 가려진 서울의 실상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은 아닌지, 언제까지 서울에만 집착할 것인지, 오늘도 내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서울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았다. ☹

신대남(본회 회우·전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회우 광장

5·18 민주화운동과 “소년이 온다”

45년 전 아픈 상처 트라우마는 ‘현재 진행형’

해마다 5월이 오면 5·18 민주화운동 때 죽음의 공포가 되살아 난다. 당시 목숨을 잃을 뻔 했던 취재기자의 트라우마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5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당시의 아픈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부상자, 실종자와 관련한 현안들이 아직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잔혹한 행위의 진상은 역사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필자는 KBS 본사 기자에서 KBS 광주방송총국에 파견되어 근무중이었다. 기자 경력 4년의 30대 초반 젊은 기자였다. 당시 광주에는 언론이 없었다. 계엄사령부가 모든 언론사 기사를 사전 검열해 내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KBS는 학생과 시민들이 계엄군을 향해 던지는 화염병 시위만 보도했다. 계엄군들이 총과 군화발로 학생과 시민들을 마구 구타하고 밟고 옷을 벗기고 손을 뒤로 묶어 끌고 가 트럭에 강제로 싣고 가는 장면들은 방송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 같은 KBS 편파·왜곡보도는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당시 5월20일 밤 10시에 광주MBC가 불에 타 전소되었다. 이어서 시민들은 바로 KBS 광주방송총국 사옥을 불 지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필자는 야간당번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분위기는 KBS사옥 밖으로 나가면 시위대에 잡혀 죽고 사옥에 남아 있으면 불에 타 숨질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계속되었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악몽과 죽음의 공포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악몽들을 다시 되살아나게 한 것은 바로 2024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다. 한강 작가가 5·18 민주화운동을 소설화한 것이 바로 “소년이 온다”였다. 필자는 45년 전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소설화 되었는지 매우 궁금해 탐독을 했다. 한강 작가는 1970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서 9세 때 상경해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아버지는 유명한 소설가 한승원(85)작가다.



5·18 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에 항거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놓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더 큰 고통 속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영혼이 없기를, 상처 입은 영혼들의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나아가 평온할 수 있기를” 한강 작가는 온 마음을 다해 세상에 전달했다. 이 소설 속에 나온 계엄군의 고문과 잔학성의 사례를 보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엄청난 충격에 넋을 잃게 된다. 고문을 했던 계엄군들은 연행 목적도 없었고 죄의식이나 망설임도 없었던 듯 하다.

비록 소설은 픽션(fiction)이라고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 상황을 실제로 직접 목격하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어 독자들을 감동하게 하고 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은 언론인들이 현장을 죽음의 공포 속에 취재했으나 보도하지 못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상처를 달래주

5·18 정신을 국민의 품안에 승화 시켜야 유공자 몇몇이 공개...의혹없이 공감대 조성

노벨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를 “한강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한강 작가가 10세 초등학교 4학년 때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이 소설은 작가가 어른이 되어 소설가로서 ‘광주 5월 민중항쟁 사료전집’ 등 각종 자료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증언 등을 중심으로 엮어 소설화한 것이다. “소년이 온다”는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텔 문학상을 수상하고 세계 200여 국가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많은 독자에게 광주의 상처를 아파하는 문학적 헌사로 높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한강 작가는 이 소설을 쓰면서 매일

울었다고 한다. 필자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당시 취재기자로서 몇 번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위기를 모면했던 생각이 떠올라 여러 차례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동호’라는 소년은 전남영암 출신 학생인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 한강 작가가 광주에서 살던 집에 이사 온 한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설화한 것이다.

소설 내용은 이렇게 전개된다. ‘동호’가 친구와 함께 도청에 나가 시위하다가 친구 ‘정대’를 잃어버려 친구를 찾기 위해 시신이 있는 상무대에서 일하게 된다. 이곳에서 만났던 김은숙, 김선주, 김진수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며 그 시절의 고통을 리얼하게 그려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혼이 되어 자신의 비참한 시체를 보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고 있다.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지역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문제이고 아픔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삼입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쯤해서 그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8천여명으로 알려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단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 운동이 기록되는 마당에 부끄러울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범국민적인 운동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윤재홍 (전 KBS 제주방송총국 국장)

한국 배터리 산업, 돌파구 찾아라

경제 포커스

전기차 수요 정체·중국산 저가 공세...국내3사 실적 악화

한국의 배터리 산업(K-배터리)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한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와 중국산 저가 공세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저가 공세가 주인(主因)

글로벌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SNE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 세계 등록 순수전기차(EV), 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3% 성장한 129.9GWh(기가와트/時)로 집계됐다. 2024년 전기차용 배터리 성장률이 27.2%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올해 출발은 괜찮은 셈이다. 글로벌 전체 시장은 이처럼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은 신통치 않다.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의 경우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8.5% 성장하며 가까스로 점유율 3위를 지켰다. 삼성SDI 경우는 실적이 더 나쁘다. 무려 22.2% 역성장하며 지난해 4위에서 올해는 8위로 4계단이나 추락한 것이다. 이들 두 업체와는 대조적으로 SK온은 순항하고 있다. 무려 38.6% 성장하며 4위에 랭크됐다. 주요 고객인 현대차의 아이오닉5, EV6 페이스리프트 모델, 메르세데스벤츠의 EQA, EQB 모델 판매량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판매량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글로벌 점유율 1위는 전년 대비 39.7% 성장한 중국의 CATL(49.6GWh)이 차지했다. 이 업체는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2위는 무려 81.0%나 급성장한 역시 중국의 BYD(21.9GWh)에 돌아갔다. 지난해 약 40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서산공장 생산라인 전경.

한 BYD는 올해엔 약 600만대의 신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BYD는 배터리와 완성차를 동시 생산하는 업체로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중국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겐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의 업황 불황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삼성SDI의 경우 올해 첫 거래일(1월2일)

국내3사 작년 영업손실 8,416억...주기도 폭락 '4차산업 핵심'에 정부·국회·업계 협약시급

배터리 3사 실적 악화...주기도 연중 최저 수준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업체들은 자국 시장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과 힘겨운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으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와 중요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며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질세라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23만9500원이던 주가는 지난달 16일 1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 들어 하락률이 무려 25.9%에 달해 연중 최저점 수준임은 물론, 최근 5년래 가장 낮은 가격이다. LG엔솔이나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주가도 삼성SDI 주가 움직임과 비슷한 궤를 연출하고 있다.

배터리 3사는 주가 뿐 아니라 영업 실적도 부진하다. 2024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이들 3사의 합산 영업 손실은 8416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SK온은 3594억 원, 삼성SDI 2567억 원, LG엔솔 225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악화 원인으로서는 ▲유럽과 북미 시장의 전기차 수요 둔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상용화 지연 ▲생산비 부담 및 공장 가동률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생산비와 고정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SK온의 경우 지난해 유럽 공장 가동률은 직전연도(9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까지 급락했고, LG엔솔의 경우는 유럽 신공장의 지난해 3분기 평균 가동률이 60%로, 전년 동기 73%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각국 배터리 산업 보호 위해 전력투구...한국은 변죽만 울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40%를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부품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도입하고, 배터리 모듈 생산에 대해 KWh(킬로와트/時) 당 45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배터리 공장 건설에도 투자금의 30%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와 2차전지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 기업을 보조하고 있다.

일본은 약 1조 엔 규모의 배터리 공급망 투자를 결정했고, 이 중 3500억 엔을 정부가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글로벌 주요국들은 배터리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인 육성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의 대응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여러가지 약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돕기 위해 세액 공제 중심의 기존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명 '한국판 IRA'다. 다시 말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이는 세액공제 대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조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터리 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전환, AI 서버 전환 등에 필요한 기반 산업이다.

배터리 산업은 또한 4차 산업의 핵심이자 탄소중립시대의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 이렇듯 전략적 가치가 큰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업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글로벌 '톱10' 가운데 한국 업체가 3개 회사나 포진돼 있는 등 저력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먹거리 산업의 하나인 배터리 산업을 살리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희곤 (본지 편집위원)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단위:GWh)

순위	기업명	2024. 1-2	2025. 1-2	Growth Rate	2024 점유율	2025 점유율
1	CATL	35.5	49.6	39.7%	38.3%	38.2%
2	BYD	12.1	21.9	81.0%	13.1%	16.9%
3	LG에너지솔루션	11.7	12.7	8.5%	12.6%	9.8%
4	SK on	4.4	6.1	38.6%	4.8%	4.7%
5	Panasonic	5.1	5.1	0.0%	5.5%	3.9%
6	CALB	3.5	5.0	42.9%	3.8%	3.8%
7	Gotion	2.6	4.6	76.9%	2.8%	3.5%
8	삼성SDI	5.4	4.2	-22.2%	5.8%	3.2%
9	SVOLT	1.7	3.5	105.9%	1.8%	2.7%
10	EVE	1.9	3.1	63.2%	2.1%	2.4%
기타		8.7	14.2	63.2%	9.4%	10.9%
합계		92.6	129.9	40.3%	100.0%	100.0%

(출처: 2025년 3월 Global EV and Battery Monthly Tracker, SNE리서치)

“언론이 국가 선진화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

언론인 故 남시욱의 언론 외길 66년 발자취

“언론·교육·학술·과학·예술이 최 선진(最先進)수준이 되면 한국도 고 질적인 정치 후진성을 극복한 명실상 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언론이 이 선진화 선도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선 고급지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언론이 전근대 후진 질곡(桎梏)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다른 전략적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비판받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데모로 시 쪼러왔던 지난 4월 1일, 87세로 타계한 남시욱 언론인은 30년 전 1995년 문화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며 신문 추락의 위기를 경고하고 고급지 전환을 그 타개책으로 제시했다. 남시욱 전 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①1959년 동아일보 공채 1기 기자로 권위주의 정치에 맞서 언론 본령을 지킨 언론인, ②신문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장(公論場)으로 끌어올린 2면 오피니언 페이지 증면과 일본신문의 지문(指紋·바탕무늬)을 털어버린 편집쇄신 등으로 고급지 전환을 시도한 선도자, ③보수·진보 정치사 체계화, 6·25 전쟁사, 취재보도론 등의 저술 ④ 인촌상·편협인상 등 권위 있는 언론상 수상자로 후배 언론인의 귀감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1938년 경북 의성 출신인 고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수습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동아일보 기자·부장·출판국장·편집국장·논설실장·동경특과원 등을 역임하고 문화일보 대표이사 사장, 관훈클럽 총무,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고려대·성균관대 언론학 석좌교수,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이사장 등 화려한 경력으로 2024년까지 66년 언론 외길을 걸었다. 언론자유가 일부 유보되었던 박정희 권위주의 시대에 그 대척점에 있었던 동아일보의 남시욱 기자(사회부)는 필화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고인이 1962년 3월 8일 서울 삼양동 판자촌에서 63세 노인이 굶주림과 추위로 숨졌다고 사회면 머릿기사로 쓴 기사를 북한 방송이 인용해 박정희 정부를 비난하자 반공법상 이적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것이다.

그런 박정권의 언론탄압 경험에도 남시욱 언론인은 1966년 여름부터 1967년 말까지 청와대를 출입하며 맞담배를 피우며 가까이서 지켜본 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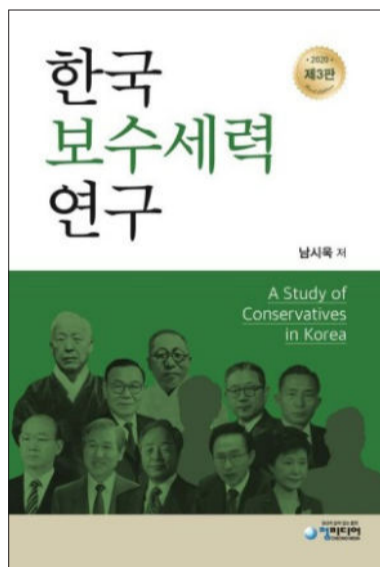


특집이다.

남시욱 언론인이 문화일보 사장으로 1995년 말 취임해서 단기간에 이루어낸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한국 신문 고급지 전환 선도 작업은 한국 언론사에 기록될 업적이다. 1996년 첫 호부터 2면의 오피니언 면을 신설하고 고급지 제작위원회가 제시한 옴부즈맨(ombudsman)시스템을 도입한 편집제작협의회 신설과 지면쇄신을 단행했다.

150여명의 최고 전문가가 기고한 문화일보 포럼은 한국의 공론구조를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시도로 모든 신문이 따라왔다. 고급지 제작위원

동아일보 공채1기로 기자 생활...문화일보 사장 역임 고급지 선도-저술...언론의 권익 지킴이로 재평가



남시욱 언론인은 ‘한국 보수세력 연구’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희 대통령에 관한 증언을 2017년 대한언론이 펴낸 <취재현장의 목격자들>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박대통령의 경제개발에 대한 헌신은 높이 평가하고 테러 수준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비판 고발 했다. 1987년 편집국장 초기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전모를 추적 보도해서 5공 강권정치 마감에 일조했다. 동아일보 박종철군 사건 보도는 군사권위주의 통제에 순응, 추락했던 언론의 체면을 세워준 언론의 감시기능 회복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1983년 5월 동아일보 출판국을 맡

은 고인은 1986년 12월까지 3년간 신동아 부수를 30만부까지 끌어올려 종합월간지 전성시대를 열었다. 박정희 정부의 ‘동아투위 사태’와 신군부의 ‘언론인 해직 사태’로 신문이 좌고 우면할 때 남시욱 출판국장은 이경재 강성재 해직기사를 출판국 기자로 복귀시켜 신문이 금기시했던 정치 사건 쟁점들을 신동아에 탐사보도해서 언론계에 충격을 주었다. <장도영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회고록> 등이 화제가 되었으며, 1985년 2·12총선을 심층 분석한 3월호가 20만부를 찍어서 잡지 저널리즘의 영향력을 극대화했다. ‘신한민주당의 전부’(이경재), ‘이민우 신한민주당 총재 인터뷰’(강성재), ‘영과워 이철은 누구인가’ 등이 5판을 찍게 한 기사들이었다. ‘김대중과 김영삼’ ‘3김씨 거취와 정국 풍향’등을 다룬 5월호도 25만부를 발행했다. 신군부 언론통제로 금기시했던 김영삼, 김대중 관련 기사를 신동아가 과감히 보도해서 신동아 위세가 동아일보 본지를 압도했다.

노재봉, 박우희, 이정복, 조순, 고은, 김동길, 김영작 교수 등이 남시욱 출판국장 시절 신동아에 등장한 필진이었다. <광주사태> <부마사태> 탐사보도 등도 신동아 부수 확장에 기여한

로 존 메릴, 장원호(미주리대교수), 유재천, 오택섭, 김정기, 김정탁 언론학자와 현승종 총장, 조용중 원로언론인과 당시 부국장이었던 필자가 참여했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일보 ‘오피니언’이 송복, 박재창, 손호철 등 비판적 지식인을 대거 필진으로 포진시켜 김대중 정부를 앞장서 비판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문공부 장관이 문화일보 사장에게 신문제작 방향전환과 제작자 교체를 강요하기도 했다.(김진현 회고록 446면) 남시욱 언론인은 조용중, 김은구씨 등 대한언론인회 회원과 함께 반체제세력의 가짜뉴스 공격을 받았던 문창극 언론인 변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남시욱 언론인은 ‘항변의 계절’ ‘체협적 기자론’ ‘인터넷시대의 취재와 보도’ ‘6·25전쟁과 미국’ ‘한국 보수세력 연구’ ‘한국 진보세력 연구’ ‘고재욱 평전’ ‘한미동맹 탄생 비화’ ‘조용중 추모문집’등을 펴냈으며, 동아대상·위암 장지연 언론상·인촌상(언론출판부문)·제1회 자랑스런 편협인상 등을 수상했다. 삼가 고인을 추모하며 한국 언론계에 고인 같은 언론인이 계속 나오길 기대한다.☞

박석홍(논설위원, 전 문화일보 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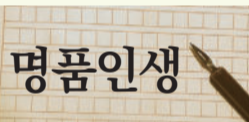


봄바람 맞으며 2만1천명 ‘봄날 달리기 축제’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봄날의 달리기 축제’ 2025 서울하프마라톤이 서울특별시, 서울체육회, 조선일보 공동주최로 열려 참가자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하프마라톤)과 여의도공원(10km)까지 달리며 봄을 만끽했다.

참가자들이 달리는 거리 곳곳에서는 밴드와 거리공연 팀들이 다채로운 노래와 춤으로 즐거움을 더했다. 올해 대회 참가자는 총 2만1,700 명으로 지난해 2만4명을 넘어 최다 참가자 기록을 경신했다. 20~30대 참가자가 71%(1만5535명)로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봄 축제였다. (조선일보 제공)



용기있는 ‘우리들의 영웅’ 찾아라

요즘 우리의 일상은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모두 전쟁터의 최일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위기에 휩싸여 있다.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좌파가 득세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다. 좌파는 윤석열의 다운 이후 이미 승기를 잡은 듯 호기롭게 나팔을 분다. 반대쪽 기죽이기인데 이미 겁을 먹은 쪽은 기가 빠져있다. 여차하면 갈아타기라도 할 듯 눈치를 보면서 얼렁뚱땅 묘수 풀이를 하는 비열족도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용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걸만 번지르르한 양아치 족속에 불과하다.

우리들 중에는 미국에 가보지도 않고 미국을 이해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 무리들도 있다. 이걸 어불성설이지만 이들은 어떻게든 거짓뉴스를 만들어 내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 미국 아니라 그 어느 나라라도 잠시 둘러보는 것만으로 그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우리가 미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은 예의범절이 없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동방예의지국’

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입관이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동방예의지국이란 우리민족이 예의에 밝아서가 아니라 중국 쪽에서 볼 때 말 잘 듣고 굴종하는 모양새가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라고 부추기는 조작에 불과하다. 예의범절로 따지자면 오히려 서양 쪽에서 우리를 이상타 할 것이다.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에게서 느끼는 첫 인상은 상당

히 부정적이다. ‘무뚝뚝하다’, ‘화난 사람 같다’, ‘불친절하게 보인다’, ‘예의가 없는 듯하다’는 것이 한국인에 대한 이들의 첫 느낌이라고 한다.

유교와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동양의 인사 예법이 고개와 허리를 숙이는 수직적인 형태를 띠는데 비해 개인주의와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양의 인사 예절은 수평적인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나이와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자유분방하게 느껴지는 서양인들의 인사 예절에도 실은 엄연한 규칙과 보이지 않는 어른에 대한 공경이 숨어 있다.

이렇듯 우리가 서양을 이해하기 어렵듯이 서양 사람들 또한 우리를 알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어떤 주요인물이나 사건 자료 등을 통해 우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예컨대 지난 2002월드컵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최고 최선의 기회였다. 그러나 이 월드컵도 한국의 참 예절과 한국인의 진실까지 전해주는 것은 어려웠다.

우리들 가슴엔 국산 토종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가는데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게 왜 일인가. 느닷없이 터져나온 계엄이니 내란이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좌우 대결 난맥상이 우리를 괴롭힌다. 올해가 을사년이기엔 을씨년 한 분위기가 우리를 우울케 하는 것일까.

그러나 역경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거짓의 장막’ 찢고 성난 얼굴로 뒤돌아 보자

누가 빅 코리아가 되어 외국인들의 가슴에 한국의 위대함을 일깨워 줄 수 있을까. 축구의 손흥민일까. 야구의 이정후일까. 이들은 일단 좋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아주 예의 바른 훌륭한 청년으로 세계인들에게 한국인의 용기와 성실 그리고 예의와 범절이 무엇인지를 가슴에서 가슴으로 알려 준 진정한 ‘우리들의 영웅’임에 틀림없다.

트럼프의 관세 편치가 잠시 우리를 긴장시켰지만 그럼에도 요즘 이래 저래 국산의 우수성이 돋보이고 있어 좋다. K팝이나 K드라마다 해서

한다. 좌우대결에 피의 복수극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 발전과 향상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응분의 대가를 가져다줄 것인데 다만 그 것이 선의에 바탕하지 않고 내일을 보는 안목이 없이 자신의 이익추구만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올바른 양지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가 왜 역경을 자초하는가. 정의의 횃불로 불의를 저지하라. 한국인이여. 다함께 성난 얼굴로 뒤돌아 보자. ☞

강이산/극작가

“국가지도자는 正祖대왕에게 배워라”

실용주의 실학 바탕...개혁정책 이끌어

황원갑의 史談史話



황원갑
본회 회우
소설가, 역사연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지상과제는 국리민복(國利民福)과 부국강병(富國強兵)이다. 국리민복과 부국강병은 무엇보다도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에 성패가 달려 있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칭호가 제왕이든 대통령이나 수상이든 만고불변의 원칙이다.

역사의 주체에 대해 몇몇 지도자나 영웅호걸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이라는 이른바 민중사관이란 게 있기는 하지만, 왕조시대건 민주화시대건 출중한 국가지도자에 의해 역사가 이어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백성의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목표를 향해 전진시키는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없이는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이 출중한가 아니면 용렬한가에 따라 수많은 나라의 명운이 좌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안보·사회·외교·문화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비상한 난국에 처했다. 비상계엄과 그 실패에 따른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나라를 통솔하는 지대지난한 과업은 결코 누구를 흉내 내거나 연습을 함으로써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자질이 비범해야만 하고, 국민 누구나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 시대의 리더십이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이나 분배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빈사상태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국가안보도 위기지만 피폐해진 민생경제가 더욱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처방을 찾아야 한다.

역사의 교훈을 재삼 강조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무슨 교훈을 찾을 것인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좋을까. 조선왕조의 문예부흥기를 이끈 중흥조 정조(正祖)에게 배우는 것이 좋다.

정조는 조선 후기 전환기에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렇다고 해서 정조가 개혁을 빌미로 온갖 여론을 무시한 채 터무니없이 제고집만 옳다고 밀어붙인 것은 아니었다. 훌륭한 군주의 자질을 갖춘 데다 당대의 어떤 학자에 비해도 손색없는 학문적 소양을 지닌 정조는 기존의 정부조직 외에 별도로 규장각(奎章閣)이란 새 기구를 설



개혁군주 정조대왕 어진.

권의 서적을 수집·편찬해 표면은 왕실도서관이나 실상은 학술과 문화의 중심이었고, 인재 양성의 요람이었다. 규장각은 관료의 기강쇄신, 인재 양성, 통치 보좌의 기능과 역할을 맡아 세종(世宗) 때의 집현전, 성종(成宗) 때의 홍문관 이상 가는 개혁의 산실 노릇을 했다.

정조는 모든 정파를 망라한 인재를 규장각 각신(閣臣)으로 선발했으며 당하관 중 37세 이하의 우수인재를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발탁해 국가의栋梁으로 양성했으니 전·현 정권의 명분 없는 자기 사람 심기나 신세값기식 인사와는 천지차이가 있었다.

그는 또 외척을 배척하고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학문정치를 펼친 데 이어 노론·소론·남인·북인을 차별하지 않고 탁월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씀으로써 보수·중도·개혁의 대연합을 이끌어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권모술수도 없었다. 이어서 정조는 신분제도의 개혁을 단행해 서얼을 등용하고 노비추쇄법을 폐지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시도했다. 또한 공식사회의 중단 없는 기강쇄신을 위해 재위 24년간 역대 어느 왕보다도 많은 기록인 60회에 걸친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신분제도 개혁으로 사회통합 이룩 안보·민생경제 책임질 정치인 절실

치하고 새로운 학문사상으로 부각된 북학(北學)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것이 바로 실사구시였다.

실사구시란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려는 과학적 학문태도였다. 청나라 초기의 고증학자들이 공리공론을 일삼던 송·명의 주관적 학풍을 배격해 객관적이며 귀납법적 과학정신을 내세운 것이었다. 이처럼 관념론적 성리학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실용주의 실학으로 사상적 재무장을 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이익(李瀾)·이가환(李家煥)·이중환(李重煥)·안정복(安鼎福)·정약용(丁若鏞) 같은 경제치용학과, 홍대용(洪大容)·박지원(朴趾源)·박제가(朴齊家)·이덕무(李德懋)·김정희(金正喜)·박규수(朴珪壽) 같은 이용후생학파의 출중한 실학자들이 나타나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실사구시 이론이 만개할 수 있었다.

정조는 무슨 일든 말부터 앞세우지 않고 세밀히 분석 검토한 뒤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겼다. 그는 뒷감당도 제대로 못하면서 매사에 큰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고 반드시 학문적 뒷받침을 구해 일의 앞뒤를 미리 살폈으며 그렇게 결정된 정책은 꾸준히 추진했다. 그런 정치 스타일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규장각이었다.

규장각은 역대 왕의 어제·어필을 봉안하고 수만

조선왕조의 르네상스를 이룩한 개혁군주 정조, 그러나 그는 그에 앞서서 보기 드문 효자였다. 그의 부친이 바로 사도세자(思悼世子), 부왕 영조(英祖)의 눈 밖에 나서 뒤주에 갇혀 비참하게 목숨을 빼앗긴 사도세자였다.

정조는 1776년 3월 10일 할아버지 영조가 재위 52년 만에 죽자 경희궁 승정문에서 조선왕조 제22대 임금으로 즉위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비참한 죽음을 당할 때 정조는 불과 여덟 살 철부지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철부지라 하더라도 여덟 살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나이이다. 더군다나 그 사건이 아버지가 참혹하게 목숨을 빼앗긴 사건이고, 그것도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른 일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앞으로 한 달여 남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나서서 서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누가 진정 국가의 장래를 위해 헌신할 후보인지, 누가 말만 앞세워 국가안보와 민생경제보다 오로지 정권만 장악하면 된다는 정치꾼인지 잘 분별하여 국정을 맡겨야 한다. 국가안보보다 자기 욕심만 앞세우는 정치꾼은 우리나라에서 필요 없다. ☞

회우 광장

“인생이란 神의 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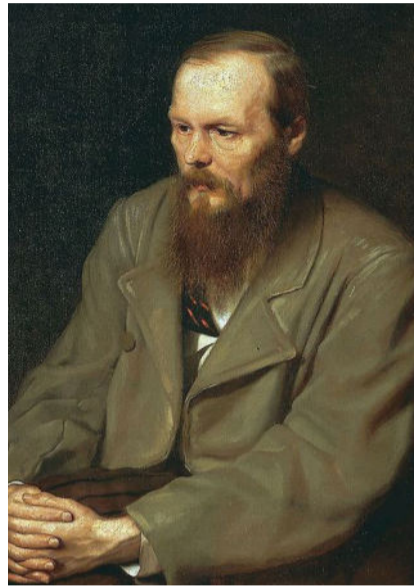


이향숙
본회 전 사무총장
수필가

“실수와 게으름으로 시간을 보낸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후회스럽다. 인생이란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소중함을 더 먼저 알았더라면. 하지만 이제 나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요즘 문득 이 구절이 새삼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 말은 세계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대문호로 꼽히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집행당할 뻔한 순간의 깨달음을, 극적으로 사형이 취

유배형을 치렀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시베리아에서 혹독한 지옥을 체험한 도스토옙스키는 긴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간관 및 세계관이 완전히 변했다. 완전히 극우 보수주의자(슬라



도스토옙스키

베리아의 유배를 겪고, 인간으로서는 극한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역경을 기회로 삼은 인간승리의 표본을 보인 그의 위대함과 천재성은 아무리 세상의 어떤 말로 찬탄한다 해도 부족하다.

그가 보인 인내와 용기, 침착함은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 서간문 통해 우리 국민들이 시대 국난 극복 의지 믿어

소된 후 형에게 보낸 편지 구절이다.

1821년 모스크바에서 가난한 군의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 젊은 지식인들이 모여 공상적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반체제 정치모임에 참가했다. 당시에는 불온문서로 간주되었던 벨린스키의 ‘고골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니콜라이 1세에 의해 1849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총살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집행관은 5분 후 집행한다며 시간을 카운트다운했다. 처음 2분간 그는 동지들을 생각했고, 다음 2분간은 살아온 날들을, 마지막 1분은 가슴에 담고 갈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 5분이 만약 필자의 마지막이라면 그와 같은 위대한 성찰을 할 수 있을까? 전혀 자신이 없다. 그 점에서 그의 위대한 인격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그러나 5분 후 “황제가 사형을 취소하고 유배형으로 감형했다”는 전갈이 오고 그래서 그는 극적으로 사형은 면하고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4년간의

브주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꿈꾼 작가가 되기로 하고 작품을 구상했다. 그러나 필기도구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 구상한 것을 기록할 수가 없고 그저 머릿속에 담고 또 기억할 뿐이었다.

석방 후 문학잡지 창간과 불후의 명작소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약령들〉 〈노름꾼〉 〈백치〉 등을 발표했다. 그의 작품은 어린 시절 가정환경의 영향인 듯 가난과 불우함을 그린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인지 비극적 세계관의 표출이라 평가 받는다. 필자가 그를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당연히 문학적인 탁월성이지만 덧붙여서 인간으로서 생존이 위협받는 그 영어의, 혹한 속에서 초인적 의지와 인내로 그런 걸작을 구상하고 또 기억을 오랫동안 지속했다는 기적 때문이다. 상상이 불가할 만큼 춥고 고통스럽고 외로웠을 텐데 훌륭하게 극복한 점이 놀랍다.

가장 밑바닥 환경에서 성장하고, 사형 집행 직전과, 지옥 같은 참혹한 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해 볼 때 더욱 절실하다고 느껴진다. 도스토옙스키의 탁월한 천재적 문학성을 더 이상 강조하고 싶지는 않다. 그가 보인 역경을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 신념을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 일어서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의 실마리를 찾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불행을 자신의 실수와 게으름 탓으로 돌리고, 진작 알지 못한 걸 후회하며, 인생은 신의 선물임을 깨닫고 부모나 황제에게 원망은 전혀 없이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그의 긍정적인 관조에 머리가 저절로 숙여진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 파탄의 위기가 소리없이 다가오고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다윗왕 때 시작된 명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윗왕은 반지 세공사에게 반지를 주문하면서 “전쟁에 이겨도 교만하지 않고,

이달의 시

또 다른 그리움

빛바랜 사진 속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한평생 기둥이 되어
용기종기 매달린
어린 생명에게
당신 열매 다 내어 주셨다

기나긴 인생길에서
험한 산길을 오르기도
넓은 들판을 지나가기도
깊고 멀기만 했던

세월의 강산 몇 번 돌아
허전한 가슴으로
한 마리 새가 되어
기억의 파편을 이어 붙이니

서재 벽 한 칸에서
오늘도 묵묵히
내려다 보시는 아버지

그리움이
눈 속 깊이 스며든다.

전익식
본지 편집위원 / 시인

절망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문구를 새겨 넣으라”고 지시했다. 고민하던 세공사는 지혜의 상징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솔로몬이 한 말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였다고 전해진다. 솔로몬의 말처럼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장은 침묵하고 있다. 정중동(靜中動)으로 조용히 소리 없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인내하며 내일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갈파했던 말이 문득 떠오른다. 승리는 초인적인 강한 의지에 대한 신의 응답이다. 과거 국난극복 경험이 많은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찬란한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 줄로 굳게 믿는다.☞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3.25 ~ 2025.4.24>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비

권준희(2025)30,000	황우연(2023-2024)60,000
유자효(2025)30,000	박창래(2024)30,000
최종철(2025)30,000	이보길(2024)30,000
조희곤(2025)30,000	유용현(2023)30,000
송선무(2025)30,000	



만보회 역사와 감동의 현장, 손기정 기념관 답사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달 18일(금) 제11차 모임을 갖고, '서울로 7017'을 거쳐 손기정기념관까지 산책했다.(사진) 손기정 기념관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수상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손기정 선수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공간이다.

<참석회원> 김윤찬, 김조영, 박종서, 안중우, 안홍렬, 장욱, 조명동, 조희곤, 최귀조, 최영배, 황우연

산악회 5월 16일 북악산 등정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황우연)는 5월 북악산에 오른다. 안국역을 출발, 새로 조성된 '열린송현공원'(구 주한미대사관 직원 숙소)을 돌아본 뒤 청와대 춘추관 쪽으로 향한다. 돌담길로 백악정을 거쳐 청와대 전망대에서 탁 트인 서울 시내를 조망. 이어 북악산(백악산)으로도 불림, 해발 342m)에 오르며 창의문 쪽으로 하산, 서촌으로 간다.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관저가 된다 면 이 같은 접근은 다시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체력에 따라 쉬실 벤치 등이 곳곳에 있으며 가족 동반도 환영한다.

- 일시 : 5월 16일(금) 오전 10시
- 집결장소 :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앞
- 코스 : 안국역-열린송현공원(구 주한미대사관 직원 숙소)-춘추관-백악정-청와대 전망대-북악산 정상-창의문-운동주문학관-서촌 오찬장
- 오찬 : 오후 1시 '토속촌' 삼계탕 (02-737-7444,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174m) 예정, 산행 힘드시면 식당으로 바로 오셔서 친교
- 참가비 : 2만원(참가신청 : 김조영 부총무 010-8225-8500)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최경호 회우 인천시 미추홀구 아암대로53 세움요양병원 6층 610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시욱 회우
(전 동아일보 상무, 문화일보 사장) 4월 1일 향년 88세 별세



엄영섭 회우
(전 한국경제신문 관리국장) 4월 9일 향년 91세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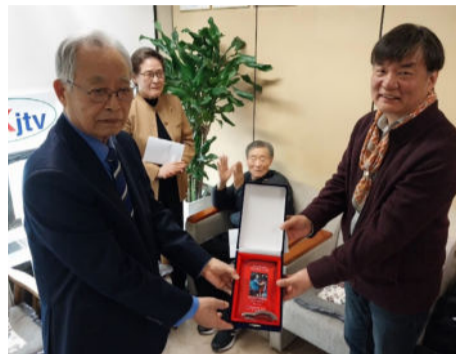
최서영 회우
(전 경향신문 편집부 국장, 코리아헤럴드 경제 사장) 4월 23일 향년 93세 별세

대한언론인회 '인간애상' 시상식

대상에 강창광기자 '패자의 인간애'

대한언론인회는 4월4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제31회 박용윤 보도 사진 '인간애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장석영 회장은 영예의 '인간애상'을 받은 한겨레신문 사진부 강창광 기자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기금출연자인 박용윤 국



장석영 대한언론인회 회장(왼쪽)이 강창광 기자(오른쪽)에게 '인간애상'을 수여하고 있다. 가운데 박수치는 사람이 이 상을 제정한 박용윤 국장이다.

장이 불편한 몸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수상작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한국대표 신유빈 선수가 출전한 탁구 단식 동메달전에서 일본 하야타 히나 선수에게 패배하고도 곧바로 일본 선수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격려하는 모습이다. 하야타 선수는 한국 선수의 이같은 태도에 오히려 부끄러워 하는 표정을 지었다.

박용윤 보도사진 '인간애상'은 사건사고 위주의 보도사진이 지면을 차지하던 시절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인간애(愛)가 담긴 사진이 많아야 한다는 고귀한 뜻으로 전 동아일보 사진부 박용윤 국장이 사재 1억원을 출연하여 만든 상이다.

회우 동정

'연세 언론인상' 수상



동아일보 이승헌 편집국장(사진)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연세 언론인 송년의 밤' 행사에서 '2024 연세언론인상'을 수상했다.

KBS 감사 취임



KBS 정지환 감사(사진)가 지난 3월10일 취임했다. 정 신임감사는 2015년 KBS 보도국장, 2017년 대전방송총국장, 2024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외이사를 거쳤다. 임기는 2028년 3월 9일까지.

언론가 소식

신문윤리위 이사선임, 윤리위원 위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제43차 정기총회에서 고영진 경남일보 발행인, 이후혁 대구일보 발행인, 이태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4년.

윤리위는 또 이날 문진현 내일신문 발행인, 심창용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오광록 광주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이동원 전 대법관,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을 2025~2026년도 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

동우회 임시총회 개최

동아일보 사우회인 동우회는 5월15일(목)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임시총회 겸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문의는 02-361-1211,1212

SBS사우회 봄소풍 5월22일 의림지로

SBS사우회는 2025년 사우회 봄소풍을 오는 5월22일 충북 제천시 의림지로 다녀오기로 했다. 당일 오전8시30분 지하철 잠실종합운동장역 5,6번 출구에 집결 후 출발하는데 부부동반을 환영한다고 한다.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석영
- 주 필 이도선
- 총괄부회장·사무총장 이규진
- 편집국장 송창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튼튼하게
탄탄하게
튼튼하게


K.스포츠 크리에이터

KSPO홍보대사 박세리


체육진흥기금 조성

 스포츠평화, 경륜/경정 사업 등을 통한 체육진흥 기금 조성


스포츠복지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민체력100, 생활체육 시설 조성 등 지원


스포츠산업 지원

 스포츠산업 금융, 스포츠 기업, 일자리 및 창업 등 지원

서울올림픽레거시 사업

 올림픽공원, 서울올림픽 기념관, 소마미술관, 서울올림픽파크텔 등 운영

체육인재 육성/지원

 체육인재 육성 (K-스포츠 에듀), 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인 복지 지원



오늘의
 혁신은
 담아
 내일은
 그리다

Since 1976

정밀화학 포장 용기 세계일류화 달성
 크로바케미칼은 지난 50년간
 정밀화학 포장 용기 생산에 전념해왔습니다.

 (주)크로바케미칼
 CLOVER CHEMICAL CO.,LTD.
www.cloverchemical.com